



25th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2026. 8. 12. (수) — 8. 16. (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키워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전주세계소리의 축제는 그동안 많은 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모든 음악과 교우하며 늘 소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그리고 25년의 세월에 녹아들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숨결을 모아 다시 모이는 판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소리로 다시 모이는 2026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동안의 역사와 함께해온 도민과 관객들을 위한 오마주입니다.

Since its inception in 2001,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embraced countless sounds. Rooted in Korea's traditional music, the Festival has connected with musical traditions from around the world while remaining at the heart of Sori.

Over the past 25 years, these sounds have been passed from voice to voice and ear to ear, becoming woven into the memories and lives of countless people.

This year, the Festival seeks to capture the breath of Sori and to rekindle the spirit of the pan—a place where people gather, connect, and celebrate together.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here people gather once again through Sori, is an homage to the citizens of Jeonbuk and the audiences who have shared the Festival's journey throughout its 25-years history.



홈페이지 sorifestival.com

블로그 enjoy_sorifestival

페이스북 sorifestival

인스타그램 sori_festival

유튜브 sorifestival



전북은행 쓱뱅크를
경험해보세요!

한 손에 쓱! 내 맘에 쓱!
전북은행 쓱뱅크



소리로 하나 되는 전주의 순간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북은행이 함께합니다.



 전북은행

새로운 L6
대한민국 농협

1989년
우리 땅에서 자란 것들



1995년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며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2025년
농심천심
국민의 마음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농업의 가치 국민과 같이

이제 농심천심의 길로 나아갑니다

 농협

주최/주관



협찬사



파트너



차례 | Contents

- 6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환영사
-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하의 글
- 10 조직위원장 환영사
- 12 집행위원장 감사의 말씀
- 14 프로그램 일정표(한국소리문화의전당)
- 16 페스티벌맵(한국소리문화의전당)
- 18 프로그램 일정표(외부장소)
- 20 페스티벌맵(외부장소)
- 22 티켓 안내
- THE SORI**
- 26 개막식·폐막식
- SORI ORIGIN**
- 32 판소리 다섯바탕
- 48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 54 산조의 밤 <박대성, 박범훈>
- 58 오늘의 시나위
- 62 [전주세계소리축제×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굿>
- 64 김소라 <여성농악-안녕, 평안굿>
- 66 고창농악보존회 <만두레 풍장굿>
- SORI SPECTRUM**
- 70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 74 소리 시네마
- 76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어반자카파·심수봉
- 80 두번째달×장명서
- 82 상자루
- 84 악단광칠
- 86 컨트리공방
- 88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GLOBAL SORI

- 92 [한국×폴란드] <쇼팽&아리랑>
- 94 [인도] 요츠나 스리칸쓰
- 95 [한국×캐나다] 재니스 조 리 & 더 큐티즈 밴드
with 송봉금
- 96 [말라위] 마달리초 밴드
- 97 [한국×이집트] 마지카 밴드
- 98 [한국×폴란드] String & Wind

SORI NEXT

- 103 [소리 NEXT] 소리 프론티어
- 105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 107 [소리 NEXT] 소리 커넥트

SORI TOGETHER

- 110 월드뮤직 워크숍
- 112 소리 프린지
- 113 찾아가는 소리축제
- 114 로컬 아티스트 인사이드 아웃
- 115 [전주세계소리축제×전주문화재단]
어린이 소리축제
- 118 [전주세계소리축제×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
백년의 기록, 천년의 번영
- 119 [전주세계소리축제×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
Beat Connect: Urban to Local
- 120 스태프

환영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Governor of
Jeonbuk State
Lee Won-taeg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통음악 축제,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스물다섯 번째 막을 올리기 위해 애써주신 최철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님과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닷새 동안 축제 현장을 다채로운 소리로 채워주실 예술인 여러분, 또 음악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해 온 25년입니다.

2001년 판소리를 중심에 두고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축제로 출발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 스물다섯 번째 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동안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시대를 담은 창작, 세계음악과의 협업을 통해 독보적인 음악 축제로 성장했고, 전북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전북의 8월이 신명으로 들썩입니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에는 25년 동안 축적된 소리의 감동과 기억을 바탕으로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판이 펼쳐집니다. 연희와 판굿, 관객 참여가 결합한 판소리 다섯바탕, 아리랑&쇼팽 공연을 비롯한 월드뮤직, 전통 국악의 본질을 조명하는 기획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많아 기대가 큼니다.

도민이 주인인 전북형 ‘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 전북도정은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장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로 도민의 삶을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전북이 간직한 문화적 자산이 경쟁력 있는 작품과 콘텐츠로 발전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공연의 감동이 긴 여운으로 남길 희망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뇌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닷새 동안 세계 각국의 예술인이 함께 펼치는 귀한 공연이 관객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하길 희망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더 큰 도약을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Message

Dear Guests, I am Lee Won-taeg, Governor of Jeonbuk State.

Welcome to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Korea's leading traditional music festival. I sincerely thank Chairperson Choi Cheol, Executive Director Kim Jeongsu, and everyone who has worked tirelessly to prepare this 25th edition. My warmest welcome also goes to the artists and audiences joining us over the next five days.

25 Years Connecting Tradition and Modernity, Korea and the World.

For the past 25 years,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connected tradition with the present, and Korea with the world. Since its launch in 2001 with pansori at its heart, the festival has embraced new artistic idea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rowing into one of Korea's leading music festivals and a proud symbol of Jeonbuk State.

Jeonbuk's August Comes Alive with Sori.

Under this year's theme, "The Breath of Sori, Gathered into One Stage," the festival brings together artists and audiences through performances inspired by 25 years of artistic achievement. From Five Pansori Stories, Chopin & Arirang, and world music to special performances celebrating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year's program offers a rich and memorable experience.

Building a Jeonbuk-style Stage Led by Its People.

The 9th popularly elected Jeonbuk State Government is committed to making culture and the arts a greater part of everyday life. We will continue to support Jeonbuk's cultural heritage so that it grows into outstanding artistic works and creative content that reach audiences around the world.

May the Inspiration of These Performances Linger Long.

Every performance reflects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its artists. I hope the music shared over these five days leaves lasting memories with you. May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continue to flourish, and I wish you all good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축하의 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김희수

Chairman of Jeonbuk
State Council
Kim Hee-su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리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인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화려한 막이 오른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축제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북을 찾아주신 국내외 음악 가족,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닷새간의 여정에 나선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라는 주제로, 기획공연부터 어린이소리축제, 찾아가는 소리축제까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소리의 대향연이 우리 전북의 늦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특히 올해 소리축제는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관람형 축제'가 아니라, 관객이 직접 호흡하고 즐기는 '관객 참여형 축제'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전통 판소리 다섯바탕에 줄타기와 사자놀이 등 역동적인 전통연회를 결합해 관객과의 소통을 극대화했으며, 지역 예술인과 도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미래를 향한 시선입니다. 신설된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와 판소리 소재 영화 상영은 최첨단 기술과 전통예술의 경이로운 만남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소리 NEXT'의 글로벌 진출과 유통 기능을 강화해 우리 전북의 소리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허브로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Dear Guests, I am Kim Hee-su, Chairman of the Jeonbuk State Council.

It is my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Korea's leading performing arts festival that shares the spirit of Korean music with the world. I als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ll participating artists, and the audiences from Korea and abroad who have joined us for this special occasion.

Embarking on a five-day journey under the theme "The Breath of Sori, Gathered into One Stage,"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ill present a grand celebration of sound. From special productions to the Children's Sori Festival and the Traveling Sori Festival, this vibrant gathering will transcend generations and borders, filling Jeonbuk's late summer with the passionate resonance of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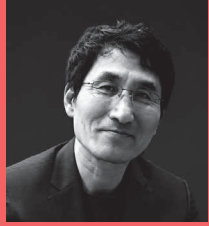
This year's festival preserves the essence of tradition while embracing bold innovation. Beyond presenting performances, it invites audiences to participate directly. The Five Pansori Stories, combined with traditional performances such as tightrope walking and lion dance, create an engaging stage experience, while expanded community programs offer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artists and residents to take part.

The festival also looks confidently toward the future. The newly launched AI Pansori Creation Project and Sori Cinema explore new possibilities where advanced technology meet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addition, "Sori NEXT" will expand its global reach and strengthen distribution, creating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Jeonbuk's Sori to achieve tangible success as it extends onto the world stage.

The Jeonbuk State Council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arts so th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grows into a global platform showcasing Korea's traditional music—the foundation of K-Culture.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 wish everyone good health, happiness, and a wonderful festival.

환영사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최철

Chairperson of JISF
Organizing Committee
Choi Chul

안녕하십니까.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최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처음 조직위원장을 맡아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좋은 축제는 공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대 위 예술가와 객석의 관객이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한순간의 감동을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축제가 완성됩니다. 그런 특별한 만남을 위해 이번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난 25년 동안 우리 소리의 가치를 지켜오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전통을 오늘의 관객과 미래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문화로 이어가며, 우리 음악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걸어왔습니다.

올해는 판소리와 산조를 비롯한 우리 전통예술, 세계 각국의 음악,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 세대가 함께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지며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예술가와 관객,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장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과 자원봉사자, 모든 예술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사랑하고 함께해 주신 관객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소리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Message

Dear Guests,

I am Choi Chul, Chairperson of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It is my great pleasure to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music festivals and a source of great pride for Jeonbuk State.

It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me to greet you this year as I begin my first term as Chairperson. A festival is not made complete by performances alone. It is truly completed when artists on stage and audiences share the same breath, creating unforgettable moments together. With this belief, we have prepared this year's festival with great care.

For the past 25 years,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preserved the valu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hile continuously seeking new artistic possibilities. We have worked to pass on our traditions to today's audiences and future generations, while creating opportunities for Korean music to communicate with the wider world.

This year's festival features a rich program of pansori, sanjo, and other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world music, creative works by young artists, and a variety of programs for audiences of all generations. We hope these diverse sounds will come together on one stage to create new inspiration and lasting memories.

We hope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ill continue to grow as a cultural platform where artists, audiences, and local communities come together.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is precious cultural heritage remains alive and continues to inspire future generation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xecutive Director Kim Jeongsu, the Secretariat, our volunteers, and all the artists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making this festival possible. Above all, I extend my heartfelt thanks to our audiences and the people of Jeonbuk State for their continued love and support.

I hope you enjoy the special sounds and unforgettable memories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here in Jeonju this summer.

Thank you.

감사의 말씀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정수
Executive Director
of JISF
Kim Jung-soo

2026년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 시작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민의 벗으로, 국내 전통음악가들의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 세계 아티스트들의 정서적 허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성장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판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전통음악과 연희,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소중히 담아내며 오늘 성년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제는 신명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축제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신비로운 공간이며, 공동체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하는 화합의 잔치입니다. 25주년을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동안 보여드렸던 수많은 소리의 숨결들의 보아 하나의 큰 대동놀이판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지나온 25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25년의 출발을 선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축제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소리 시네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 참여를 높이고, 미래 한국의 음악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변화의 물꼬와 실험적 시도를 통해 향후 새롭게 변모할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방향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초인적 힘으로 일해온 조직위와 사무국 식구들의 노고에 많은 분들이 손발 건어붙이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후원사와 아티스트, 축제에 봉사자로 나서주신 소리천사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인사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축제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모아 닷새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신명나는 판을 즐기실 여러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축제와 공연은 관객의 예술입니다. 많이 오시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완성시켜주시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Message

Welcome to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Since its beginning in 2001,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become a friend to the people of Jeonbuk, a gathering place for Korea's traditional musicians, and an emotional hub for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ith Pansori as its point of departure, the Festival has embraced every kind of sound—from Korea's traditional music and performing arts to musical traditions from across the globe—and now celebrates its 25th anniversary.

A festival embodies the spirit of sinmyeong—the exhilarating energy and collective joy that arise when people gather in celebration. Throughout history, festivals have been a time for rest and renewal, a wondrous space where people are renewed, and a celebration of harmony that affirms the spirit of community. As it celebrates its 25th anniversary, the Festival brings together the many breaths of Sori it has shared over the years into one great Daedongnori—a communal celebration where people come together as one. In doing so, it reflects on the past 25 years while opening the way to the next 25 years.

This year's Festival also presents a vision for the future. Through programs such as the AI Pansori Creation Project and Sori Cinema, it expands public participation while strengthening its support for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n music. Through new initiatives and artistic experiments, the Festival offers a glimpse of the direction in which it will continue to grow.

This Festival has been made possible through the extraordinary dedicati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Secretariat for a successful festival, together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Jeonbuk State, the Jeonbuk State Council, our sponsors, our artists, and the many Sori Angels who have volunteered for the Festival. Although I cannot thank each of them individually,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helped make this Festival possible.

Now, all of those efforts come together as five days of celebration begin. The time has come for you to step into this vibrant Pan of Daedongnori, filled with the spirit of sinmyeong. A festival and every performance find their completion through the audience. We warmly invite you to join us and become part of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ank you.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 프로그램 일정표

	8/12(수)	8/13(목)	8/14(금)	8/15(토)	8/16(일)
모악당 Moak Hall	13:30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이수현	13:30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심청가-박시본	13:30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홍보가-최광균	11:00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적벽가-고한돌	11:00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수궁가-소정
	18:00 판소리 다섯바탕 춘향가-장문희	18:00 판소리 다섯바탕 심청가-송재영	18:00 판소리 다섯바탕 홍보가-김차경	15:00 판소리 다섯바탕 적벽가-왕기석	15:00 판소리 다섯바탕 수궁가-김세미
				19:30 산조의 밤 〈박대성, 박범훈〉	
연지홀 Yeonji Hall		19:30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16:00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북CBS] 어반자카파	16:00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북CBS] 심수봉
명인홀 Myeongin Hall		17:0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김미선×서정숙×유인상〉	17:00 [인도] 요조나 소리칸스	17:00 [한국×폴란드] 〈소평&아리랑〉	17:00 오늘의 시나위
		18:3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뮤직그룹 세움〉	18:3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유빈댄스 콜렉티브〉	19:0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블루찬트〉	
		19:2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서정민〉	19:2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사물놀이 느닷〉		
전시장 Exhibition Hall			11:00 월드뮤직 워크숍 [폴란드] 루토 슬로비아니에 오케스트라	11:00 월드뮤직 워크숍 [인도] 요츠나 소리칸스	
	14:00 [KOFICE 협력] 해외교류 설명회	14:00 [소리 NEXT] 소리 포럼	14:00 [소리 NEXT] 소리 포럼		
중회의장 Conference Room		11:00 [소리시네마]GV (16:00 〈서편제〉 관객과의 대화)	11:00 [소리시네마]GV (16:00 〈이화중선〉 관객과의 대화)		
놀이마당 Nori Madang		18:00 [전주세계소리축제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굿〉	18:00 김소라 〈여성농악-안녕,평안굿〉	18:00 고창농악보존회 〈만두레 풍장굿〉	18:00 컨트리공방
		19:00 [한국×캐나다] 재니스조리&큐티즈밴드 with송봉금	19:00 [한국×이집트] 마지카밴드	19:00 [말라위] 마달리초밴드	19:00 [한국×폴란드] String & Wind
	20:00 개막식	20:0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남도콜럼〉	20:0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동양고주파〉	20:00 [소리 NEXT] 소리 초이스 〈시오트〉	20:00 폐막식
		21:00 두번째달×장명서	21:00 상자루	21:00 악단광칠	

2026 TIME TABLE | Sori Arts center of Jeonbuk State

Wed, Aug. 12	Thu, Aug. 13	Fri, Aug. 14	Sat, Aug. 15	Sun, Aug. 16
1:30 PM Young Five Pansori Stories 〈Chunhyangga - Lee Suhyun〉	1:30 PM Young Five Pansori Stories 〈Simcheongga - Park Sibon〉	1:30 PM Young Five Pansori Stories 〈Heungboga - Choi Kwanggyun	11:00 AM Young Five Pansori Stories 〈Jeokbyeokga - Ko Handol〉	11:00 AM Young Five Pansori Stories 〈Sugungga - So Jang〉
6:00 PM Five Pansori Stories 〈Chunhyangga - Jang Moonhee〉	6:00 PM Five Pansori Stories 〈Simcheongga - Song Jaeyoung〉	6:00 PM Five Pansori Stories 〈Heungboga - Kim Chagyeong〉	3:00 PM Five Pansori Stories 〈Jeokbyeokga - Wang Giseok〉	3:00 PM Five Pansori Stories 〈Sugungga - Kim Semi〉
			7:30 PM Night of Sanjo	
	7:30 PM Namwon Municipal Gugak Troupe Gugak Theatre 〈Father's Liberation Diary〉		4:00 PM [JISF×Jeonbuk CBS] Urban Zakapa	4:00 PM [JISF×Jeonbuk CBS] Sim Soo-bong
	5:00 PM [Sori NEXT] Sori Choice 〈Kim Mi-seon × Seo Jung- sook × Yoo In-sang〉	5:00 PM [India] Jyotsna Srikanth	5:00 PM Korea × Poland Chopin & Arirang	5:00 PM Today's Sinawi
	6:30 PM [Sori NEXT] Sori Choice 〈Music group SEUM〉	6:30 PM [Sori NEXT] Sori Choice 〈UBIN Dance Collective〉	7:00 PM [Sori NEXT] Sori Choice 〈BLUECHANT〉	
	7:20 PM [Sori NEXT] Sori Choice 〈Seo Jungmin〉	7:20PM [Sori NEXT] Sori Choice 〈SAMULNORI NEWDOT〉		
		11:00 AM World Music Workshop [Poland] Lutoslowianie Orchestra	11:00 AM World Music Workshop [India] Jyotsna Srikanth	
	2:00 PM [KOFICE Partnership] Global Exchange Briefing	2:00 PM [Sori NEXT] Sori Forum	2:00 PM [Sori NEXT] Sori Forum	
		11:00 AM [Sori Cinema] GV Sopyonje - Kim Myung-gon Lee Hwa-jungseon - Baek Hak-ki, Jung E-hwa		
	6:00 PM [JISF×Gangneung Danoje] Gangneung Danoje Preservation Society 〈Gangneung Danogut〉	6:00 PM Kim Sora 〈Women's Nongak - Hello, Pyeongangut〉	6:00 PM Gochang Nongak Preservation Society 〈Mandure Pungjanggut〉	6:00 PM Country Gongbang
	7:00 PM [Korea × Canada] Janice Jo Lee and the QTS with Bongbeum Song	7:00 PM [Korea × Egypt] Mazzika Band	7:00 PM [Malawi] Madalitso Band	7:00 PM [Korea × Poland] String & Wind
	8:00 PM Opening Ceremony	8:00 PM [Sori NEXT] Sori Choice 〈NAMDO CALLING〉	8:00 PM [Sori NEXT] Sori Choice 〈DongyangGozupa〉	8:00 PM [Sori NEXT] Sori Choice 〈SYOT〉
		9:00 PM Second Moon × Jang Myeong-seo	9:00 PM Sangjaru	9:00 PM ADG7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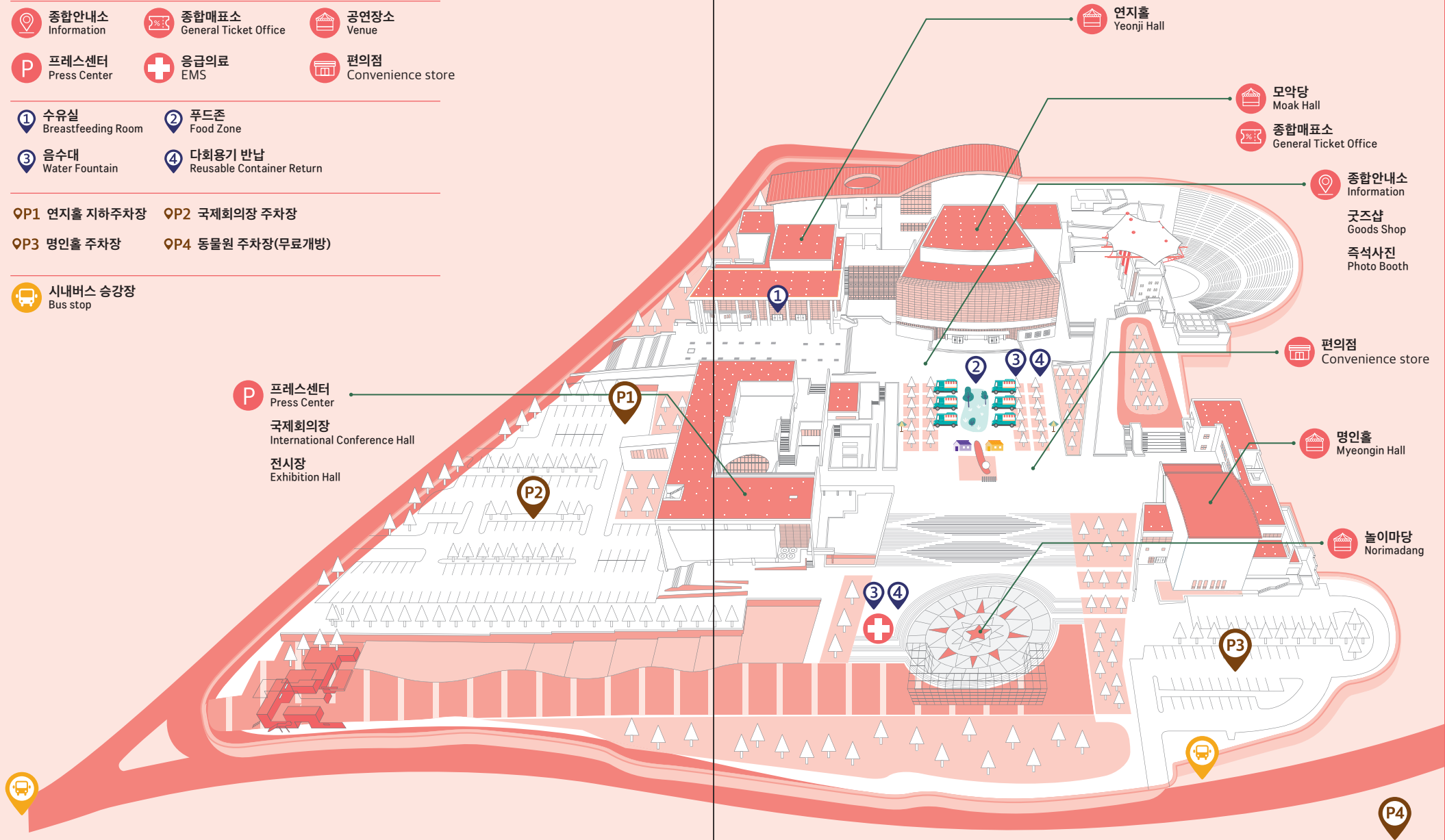
페스티벌 맵 | Festival Map

-  종합안내소
Information
-  종합매표소
General Ticket Office
-  공연장소
Venue
-  프레스센터
Press Center
-  응급의료
EMS
-  편의점
Convenience store

-  ①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  ② 푸드존
Food Zone
-  ③ 음수대
Water Fountain
-  ④ 다회용기 반납
Reusable Container Return

- QP1 연지홀 지하주차장
- QP2 국제회의장 주차장
- QP3 명인홀 주차장
- QP4 동물원 주차장(무료개방)

-  시내버스 승강장
Bus stop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외부장소 | 프로그램 일정표

	8/12(수)	8/13(목)	8/14(금)	8/15(토)	8/16(일)
우진문화공간 공연장	21:30 [소리 NEXT] 소리 프론티어 〈모던 국악프로젝트 차오름〉〈오드리〉	21:30 [소리 NEXT] 소리 프론티어 〈모던 국악프로젝트 차오름〉〈오드리〉			
Performance Hall, Woojin Cultural Foundation	22:10 [소리 NEXT] 소리 프론티어 〈황진아〉	22:10 [소리 NEXT] 소리 프론티어 〈오름새〉			
전북특별 자치도 일원		10:30 [소리 NEXT] 소리 비지팅 풍류:바람과 함께 듣는 노래 전주한지박물관	11:00 [소리 NEXT] 소리 비지팅 풍류:바람과 함께 듣는 노래 부안 내소사		
Jeonbuk State					
팔복예술공장 유아예술 놀이터	10:00 〈이상한 나라의 작곡가〉	10:00 〈사라진 소리선을 찾아서〉	10:00 〈동동통통 리듬 탐험대〉	10:00 〈이상한 나라의 작곡가〉	
Palbok Art Factory Dreaming Art Playground		13:30 〈동동통통 리듬 탐험대〉	13:30 〈사라진 소리선을 찾아서〉	13:30 〈유아예술놀이터〉	13:30 〈유아예술놀이터〉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10:00 〈개똥이의 모험〉	10:00 〈개똥이의 모험〉	
Palbok Art Factory			12:00 〈개똥이의 모험〉	12:00 〈개똥이의 모험〉	
The Poplar Tree Picture Book Library			16:00 월드뮤직워크숍 〈마지카밴드〉	16:00 월드뮤직워크숍 〈컨트리공방〉	
팔복예술공장 꿈터마루방	10:30 〈소리,치다〉	10:30 〈소리,치다〉	10:00 〈개똥이의 모험〉	10:00 〈개똥이의 모험〉	10:30 〈소리,치다〉
Palbok Art Factory Kkumteo Marubang	14:00 〈소리,치다〉	14:00 〈소리,치다〉	12:00 〈개똥이의 모험〉	12:00 〈개똥이의 모험〉	
				14:30 〈소리,치다〉	
남부시장 내 사거리			8. 14. (금) - 8. 16.(일) 14:00 [전주세계소리축제×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 백년의 기록, 천년의 번영		
Nambu Market Intersection					
남부시장 모이장			8. 14. (금) - 8. 15. (토) 19:00 [전주세계소리축제×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 Beat Connect: Urban to Local		
Moijang, Nambu Market					
전주시 일원	22:40 [소리 NEXT] 소리 나이트			22:40 [소리 NEXT] 소리 나이트	
Jeonju City					

2026 TIME TABLE | Outside Venue

Wed, Aug. 12	Thu, Aug. 13	Fri, Aug. 14	Sat, Aug. 15	Sun, Aug. 16
9:30 PM [Sori NEXT] Sori Frontier 〈ODREY〉	9:30 PM [Sori NEXT] Sori Frontier 〈Modern Gugak Project CHAOREUM〉			
10:10 PM [Sori NEXT] Sori Frontier 〈HAWNG GINA〉	10:10 PM [Sori NEXT] Sori Frontier 〈OREUMSAE〉			
	10:30 AM [Sori NEXT] Sori Visiting 〈Pungnyu: Songs Carried by the Wind〉 Jeonju Hanji Museum	11:00 AM [Sori NEXT] Sori Visiting 〈Pungnyu: Songs Carried by the Wind〉 Naesosa Temple, Buan		
10:00 AM 〈The Composer in Wonderland〉	10:00 AM 〈Finding the Lost Sound Lines〉		10:00 AM 〈Flipper Flop〉	10:00 AM 〈The Composer in Wonderland〉
	1:30 PM 〈Flipper Flop〉	1:30 PM 〈Finding the Lost Sound Lines〉	1:30 PM 〈Children's Art Playground〉	1:30 PM 〈Children's Art Playground〉
		10:00 AM 〈Gaeddongi's Adventure〉	10:30 AM 〈Gaeddongi's Adventure〉	
		12:00 PM 〈Gaeddongi's Adventure〉	12:00 PM 〈Gaeddongi's Adventure〉	
		4:00 PM World Music Workshop 〈Mazzika Band〉	4:00 PM World Music Workshop 〈Country Gongbang〉	
10:30 AM 〈Sori Percussion〉	10:30 AM 〈Sori Percussion〉	10:00 AM 〈Gaeddongi's Adventure〉	10:00 AM 〈Gaeddongi's Adventure〉	10:30 AM 〈Sori Percussion〉
2:00 PM 〈Sori Percussion〉	2:00 PM 〈Sori Percussion〉	12:00 PM 〈Gaeddongi's Adventure〉	12:00 PM 〈Gaeddongi's Adventure〉	
			2:30 PM 〈Sori Percussion〉	
		8. 14. (Fri) - 8. 16. (Sun) 2:00 PM [JISF × Centennial Market Project Team] A Century of Memories, A Millennium of Prosperity		
		8. 14. (Fri) - 8. 15. (Sat) 7:00 PM [JISF × Department of Electronic Music, Baekje University of the Arts] Beat Connect: Urban to Local		
10:40 PM [Sori NEXT] SORI NIGHT			10:40 PM [Sori NEXT] SORI NIGHT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 맵 | Jeonju Map

 팔복예술공장
Palbok Art Factory

 한국소리문화의전당
Korea Sori Arts Center

 우진문화공간
WOOJIN Culture Space

 남부시장
Nambu Market

버스 노선 Bus route

 79번
전주동물원 → 시외버스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 한옥마을

 165번
전주동물원 → 전북대학교 → 고속버스터미널 → 전동성당-한옥마을 → 남부시장

 999번
전주동물원 → 전주역 → 전북대학교 → 고속버스터미널 →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 한옥마을 → 남부시장

 팔복예술공장 | 644번 / 684번 / 685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Korea Sori Arts Center

 전주역
Jeonju Station

조경단로
Jogyeongdan-ro

백제대로
Baekje-daero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주시청
Jeonju City Hall

기린대로
Girin-daero

 팔복예술공장
Palbok Art Factory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Jeonju Express Bus Terminal

 전주한옥마을
Jeonju Hanok Village

 우진문화공간
WOOJIN Culture Space

 남부시장
Nambu Market

전주천
Jeonjucheon

전주천
Jeonjucheon

티켓 안내 | 티켓 구입 온라인 예매

현장 매표소
운영

구분	위치	운영 시간
종합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1층 안내데스크	12:00 ~ 21:00
간이 매표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명인홀 1층 안내데스크 팔복예술공장 B동 1층 유아예술놀이터 입구 앞 데스크	공연 시작 1시간 전 09:30 ~ 당일 프로그램 종료

입장 및 공연 관람
유의 사항

-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모든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 수령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 1시간 전 / 팔복예술공장 공연 20분 전)
- 티켓 수령 시 예매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소리축제 프로그램의 티켓은 팔찌 형태로 제공됩니다.
- 공연 시작 이후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입장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현장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1명당 1개의 티켓을 소지하여야 하며, 티켓이 없을 시에는 그 어떠한 사유로도 입장이 불가하니 보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할인
안내

20%	JB카드(전북은행)(1인 4매), NH농협카드(농협은행)(1인 4매), 전북특별자치도민(본인 1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숙박(1인 2매)
30%	단체회원(20명 이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료회원(1인 4매), 초·중·고 학생(본인 1매), 전북투어패스카드(1인 1매), 예술인 패스(본인 1매)
50%	문화누리카드(1인 4매), 65세 이상 성인(본인 1매), 국가유공자(1인 2매), 의사자·의사자(1인 4매), 장애인(1인 2매)

- 모든 할인은 한 가지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공연 당일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 지참 필수이며, 미지참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민 할인’ 증빙은 거주·재학·재직·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권·명함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숙박 할인’은 축제 기간만 유효합니다. (8/12~8/16)
- 1만원 정액공연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할인만 적용됩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 구매처
- NOL 인터파크 nol.interpark.com/ 1544-1555
 - 일자 6월 23일(화) ~ 8월 16일(일)
 - 티켓문의 063-232-8395
- ※ 어린이 소리축제 유료 프로그램은 네이버 스토어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smartstore.naver.com/jisf

Ticket Information | Ticket Purchase Online Booking

On-site
Ticket Office

Category	Location	Hours
Main Ticket Office	Information Desk, 1F, Moak Hall, Sori Arts Center	12:00 ~ 21:00
Satellite Ticket Office	Information Desks, 1F, Yeonji Hall & Myeongin Hall, Sori Arts Center Palbok Art Factory B-1F Dreaming Art Playground Entrance Desk	Opens 1 hour before each performance 09:30 ~ End of today's program

Admission &
Performance
Guidelines

- All tickets for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must be collected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Sori Arts Center: From 1 hour before the performance / Palbok Art Factory: From 20 minutes before the performance)
- Please present your booking confirmation number and a valid photo ID when collecting your tickets.
- Tickets for the Palbok Art Factory program come in the form of bracelets.
- Late admission may be restricted after the performance begins.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festival staff.
- Each audience member must have a valid ticket for admission. Entry will not be permitted without a ticket under any circumstances.

Ticket Discounts

20%	JB Card (Jeonbuk Bank) (up to 4 people), NH NongHyup Card (NongHyup Bank) (up to 4 people), Jeonbuk State residents (1 ticket), Guests staying at accommodations in Jeonbuk State (up to 2 people)
30%	Group bookings (20 or more), Sori Arts Center paid members (up to 4 peopl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 ticket), Jeonbuk Tour Pass Card holders (1 ticket), Artist Pass holders (1 ticket),
50%	Munhwa Nuri Card holders (up to 4 people), Seniors (65 years and older) (1 ticket), National Merit recipients (up to 2 peopl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Bereaved Families (up to 4 people), Persons with disabilities (up to 2 people)

- Only one discount may be applied per ticket. Discounts cannot be combined.
- Supporting documentation must be presented when collecting tickets. If proof of eligibility is not provided, the price difference must be paid.
- Proof for the Jeonbuk State Resident Discount may include a certificate of residence, enrollment, employment, or family relationship. (Passports and business cards are not accepted.)
- The Jeonbuk State Accommodation Discount is valid only during the Festival period (Aug. 12-16).
- The KRW 10,000 flat-rate performances are eligible only for the National Merit and Disability discounts.

Online Ticket
Booking

- Ticket Vendor
- NOL Interpark nol.interpark.com/ 1544-1555
 - Booking Period June 23 (Tue) - August 16 (Sun)
 - Ticket Inquiries 063-232-8395
- ※ Paid programs for the Children's Sori Festival are available through the Naver Smart Store.
smartstore.naver.com/jisf

THE SORI



개막식

〈만개의 숨, 하나의 판〉

Opening Ceremony
〈Countless Breaths,
One Stage〉

8. 12. Wed 20: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2001년 첫발을 내디딘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5회를 맞이했다. 개막식 축하공연 〈만개의 숨, 하나의 판〉은 올해의 주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바탕으로, 그간 축제가 축적해 온 전통음악의 가치와 성과를 웅장하게 펼쳐낸다.

명창들의 치열한 독공과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 그리고 객석에서 함께 환호했던 관객의 땀방울과 호흡은 '만개의 숨'이 되어 시청각적 레이어로 쌓인다. 흩어져 있던 이 수많은 숨결은 마침내 한데 모여, 경계 없이 호흡하고 상생하는 대동(大同)의 장인 '하나의 판'을 완성한다.

각자의 숨결이 모여 거대한 하나의 소리가 되고, 그 울림이 다시 모두를 잇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무대와 객석,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이 거대한 판은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 온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빛나는 정신을 오롯이 증명한다.

개막식 축하공연

연출. 오현주	송가인
조연출. 박하늘	우리소리바라지
영상. 우현수	사물놀이 청배연희단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first launched in 2001, celebrates its 25th anniversary this year. The opening performance, Countless Breaths, One Stage, reflects this year's theme, "The Breath of Sori, Gathered into One Stage," while celebrating the artistic legacy the festival has built over the past 25 years.

The dedication of master performers, the passion of young artists, and the energy shared by audiences become countless breaths, gathering into a single stage where all come together in harmony. It is a place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artists and audiences, Korea and the world meet without boundaries.

As countless individual breaths become one powerful sound, this opening performance embodies the spirit of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a festival created together by artists and audiences over the past 25 years.



폐막식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

Closing Ceremony

〈The Stage of Breath,
the Life of Tomorrow:
We All Become the Pan〉

8. 16. Sun 20: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폐막식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는 국내외 예술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지역 예술가가 함께 새로운 '판'을 완성하고, 세대와 지역, 국가를 잇는 협업을 통해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초청 프로그램 예술가와 완주어린이취타대가 폐막식의 서막을 열고, 판소리 명창과 미래 세대 소리꾼이 축제의 번영을 노래하며, 소리프론티어 본선 진출팀이 전통음악의 현재를 보여주고, 박현희 무브먼트 단체와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신명과 대동의 흥으로 폐막의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 5일간 선보인 공연과 교류의 성과를 집약하여 축제의 의미를 마무리하고,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세계 월드뮤직과 소통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연출. 조승철

왕기석 소장

피오토르 다마시에비치

완주어린이취타대

오름새

임실필봉농악보존회

박현희 무브먼트 안무. 박현희

조안무. 최진영



〈The Stage of Breath, the Life of Tomorrow: We All Become the Pan〉 brings together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longside children and local performers from Jeonbuk State to create a new pan. Through collaboration across generations, regions, and cultures, the ceremony celebrates the festival's future vision.

International guest artists and the Wanju Children's Chwita Band open the program, followed by master Pansori singers, emerging Sori artists, and the Sori Frontier finalists. Park Hyun Hee Movement and the Imsil Pilbong Nongak Preservation Society bring the festival to a vibrant close. Bringing together the performances and exchanges of the past five days, the ceremony reaffirms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s identity and its vision of connecting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world.



SORI ORIGIN

- 판소리 다섯바탕
 -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 산조의 밤 <박대성, 박범훈>
 - 오늘의 시나위
- [전주세계소리축제×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굿>
- 김소라의 <여성농악-안녕, 평안굿>
- 고창농악보존회 <만두레 풍장굿>

판소리 다섯바탕

Five Pansori Stories

8. 12. Wed - 16. Sun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
前 판소리학회 회장

‘판소리 다섯바탕’은 소리 축제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판소리 다섯바탕’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꾼들이 출연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판소리에서는 ‘바디’가 다르면 다른 작품으로 본다. 한 바디 내에는 여러 바탕소리가 있다. 또 판소리는 전승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남원에 전승되는 <홍보가>는 강도근바디이며, 전주에 전승되는 판소리는 동초(김연수)바디가 다수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에서는 정응민바디가 전승의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 ‘판소리 다섯바탕’에서는 바디별,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2026 소리축제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바디별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출연진
판소리. 장문희(춘향가), 송재영(심청가), 김차경(홍보가), 왕기석(적벽가), 김세미(수궁가)
연화·줄타기. 예인협회 "In천지"
사회자. 정민영, 이은비
소리꽃. 김민주, 소주현, 이도경, 이예지

제작진
연출. 오진욱
구성작가. 오명선
무대디자인. 손지희
영상디자인. 한다예
무대기술총괄. 박기남
무대감독. 김응환
조명. 코엘
음향. M60
중계. 에이맥스
무대제작. (주)풀굿
분장. 강지영

전주 지역에서 전승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연수바디로 <춘향가>와 <심청가>를 선정했고, 역시 전주의 소리인 홍정택(추담)바디 <수궁가>와 고창 출신 김소희의 소리인 김소희(만정)바디 <홍보가>, 그리고 정읍 출신의 왕기석이 부르는 박봉술바디 <적벽가>를 골랐다. <적벽가>를 우리 고장의 소리로 고르지 못한 것은 동초제(김연수바디) 외에는 전북의 <적벽가>라고 할 만한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26 ‘판소리 다섯바탕’은 전북특별자치도 판소리 특집으로 부를 만하다. 2026 소리축제에서는 소리축제를 벌이는 전북 지역의 판소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판소리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2026 ‘판소리 다섯바탕’은 예전과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합동공연의 형식을 취하면서 소리를 중심에 내세우는 구성을 했다.

Five Pansori Stories is the signature program of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the clearest expression of its artistic identity. Each year, it brings together leading sorikkun representing Korea's diverse pansori traditions.

In pansori, each Badi is regarded as a distinct artistic tradition. Every Badi has its own repertoire and reflects the musical heritage of a particular region. In previous editions, the festival sought to maintain a balance among different Badi lineages and regional schools. This year, however, the focus is placed on the pansori traditions of Jeonbuk State, where the festival is held.

The 2026 program presents Chunhyangga and Simcheongga in the Kim Yeonsu (Dongcho) Badi, Sugungga in the Hong Jeong-taek (Chudam) Badi, Heungboga in the Kim Sohee (Manjeong) Badi, and Jeokbyeokga in the Park Bongsul Badi, performed by Jeongeup-born master singer Wang Giseok. Rather than emphasizing regional balance, this year's selection highlights the rich pansori heritage of Jeonbuk State and reaffirms the region as one of the principal homes of pansori.

이전의 ‘판소리 다섯바탕’에 비해 판소리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구성인 것만은 분명하다. 판소리만을 기대했던 관객에게는 당혹감을 줄 수도 있는 구성이다.

그러나 판소리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판소리 다섯바탕’은 관중 동원에도, 이슈의 생산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판소리 다섯바탕’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어떻게든 ‘판소리 다섯바탕’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축제 기획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번 축제 기획의 의도는 명확하다. 프로그램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서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소리 다섯바탕’의 새로운 시도가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The format of Five Pansori Stories has also evolved. While keeping pansori at its core, the performances incorporate collaborative staging and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o create a more engaging experience. This may feel different for audiences expecting conventional solo performances, but it reflects today's reality and the need to broaden the appeal of pansori.

The goal is clear: to revitalize Five Pansori Stories through creative innovation and reaffirm it as the flagship program of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is new approach is intended not only to preserve tradition, but also to secure its future.

판소리 다섯바탕
연출의도

Five Pansori Stories
Director's Note

연출, 오진욱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바탕’은 열린 형태의 놀이판을 지향하며, 판소리 본연의 현장성과 즉흥성을 살리고자 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여는 마당, 소리마당, 축제마당의 세 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줄타기와 개인놀이로 25회 기념 축제의 흥을 돋우고,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로 소리판을 채운 뒤, 풍성한 판굿과 대동놀이를 마무리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간다.

또한 무대 위 관객(청중)과 자연스러운 댕거리를 통해 관객과 소리꾼의 거리를 좁히고, 청중이 소리의 울림을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출연자가 공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관객 역시 단순한 감상자를 넘어 소리판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판소리와 여러 놀이가 함께했던 전통 공연의 열린 형식을 통해 소리꾼과 청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판의 정신을 되살리고,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소리판을 선보이고자 한다.

Five Pansori Stories is conceived as an open performance that preserves the immediacy and improvisational spirit of pansori. The production unfolds through three sections—Madang, Sori Madang, and Festival Madang. It opens with tightrope walking and traditional solo performances to celebrate the festival's 25th anniversary, continues with the profound voices of master singers, and concludes with pangut and Daedongnori, creating a grand festival shared by performers and audiences alike.

The production also encourages natural interaction between the Sorikkun and the audience, allowing spectators to experience the resonance of Pansori at close range and respond as part of the performance. All performers remain on stage from beginning to end, while the audience becomes an active participant rather than a passive observer. By reviving the open format of traditional performances, where Pansori and folk entertainment coexist, this production restores the communal spirit of pan and presents a Soripan that embodies the identity of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판소리 다섯바탕

장문희의 동초제 춘향가

Five Pansori Stories

Jang Moonhee's Dongchoje Chunhyangga

8. 12. Wed 18: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글. 최동현

장문희 창 동초제 <춘향가>

장문희가 부르는 <춘향가>는 이른바 동초제 혹은 김연수제라고 부르는 소리이다. 김연수제를 동초제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김연수의 호가 동초이기 때문이다.

김연수는 일제 강점기까지 전승되고 있던 여러 소리를 배운 뒤, 이를 자신만의 판소리로 다시 짚다. 그래서 이전의 소리와는 다르다는 뜻으로 제 혹은 바디를 따로 설정하여 동초제(바디) 또는 김연수제(바디)라고 부른다.

김연수의 소리는 수제자인 오정숙에게 전해졌고, 오정숙은 전북 일대의 소리꾼들에게 그 소리를 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리꾼이 바로 이일주이다.

장문희는 이일주 명창의 이질녀이다. 어려서부터 이모인 이일주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데다가 재질이 있어, 이일주의 소리를 가장 잘 전승한 소리꾼에 속한다. 이일주 명창의 젊은 시절 소리를 듣고 싶으면 장문희 명창의 소리를 들어보면 된다. 그만큼 동일성이 강하다. 장문희의 <춘향가>는 동초제 <춘향가> 중에서도 이일주로 이어진 소리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다. 고수에는 조용안 명고가 함께 한다.

Jang Moonhee Performs the Dongchoje Chunhyangga

Jang Moonhee performs the Dongchoje Chunhyangga, also known as the Kim Yeonsuje. The name "Dongcho" comes from Dongcho, the pen name of Kim Yeonsu.

After studying earlier Pansori traditions, Kim Yeonsu reorganized them into his own distinctive style, which became known as the Dongcho Badi or Kim Yeonsu Badi.

This tradition was passed to his foremost disciple Oh Jeong-suk, and later to many Sorikkun in Jeonbuk, including the renowned Lee Il-ju.

Jang Moonhee, Lee Il-ju's niece, trained under her aunt from childhood and is recognized as one of the finest inheritors of her artistry. Her performance presents the essence of the Dongcho Badi as transmitted through Lee Il-ju. Jo Yong-an accompanies her on the Gosu drum.



장문희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심청가)보유자
- 제3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수상
-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심청가, 춘향가> 다수 완창
- 현)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출강



고수 조용안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장단 보유자
- 제15회 전국고수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역임
-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역임

판소리 다섯바탕

송재영의 동초제 심청가

Five Pansori Stories

Song Jaeyoung's

Dongchoje Shimcheongga

8. 13. Thu 18: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글. 최동현

송재영 창 동초제 <심청가>

동초제 <심청가>는 명창 김연수가 <보성소리 정응민 바디 심청가>와 신소설 <강상련>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짠 <심청가>이다.

김연수 판소리의 가장 큰 특색은 '극적인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 김연수는 한평생 창극 활동에 전념하면서, 판소리를 극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소리꾼이었다. 김연수의 소리가 극적인 지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동초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너름새에 능해야 한다. 오정숙이 특히 뛰어난 점은 소리도 잘했지만 너름새를 기막히게 잘했기 때문이었다.

송재영 명창은 이일주 명창의 제자 중 대표적 남자 소리꾼이다. 송재영 명창의 스승 이일주 명창은 오정숙 명창의 제자이지만 너름새보다는 성음 위주의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었다. 그러나 송재영은 스승의 소리에 부족한 너름새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송재영은 연기력이 뛰어나 창극 <심청전>에서 심봉사 역으로는 최고라는 찬사를 들었다. 송재영은 <심청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되었다. 고수에는 이태백 명고가 함께 한다.

Song Jaeyoung Performs the Dongchoje <Simcheongga>

The Dongchoje Simcheongga is a version newly arranged by master singer Kim Yeonsu, based on the Jeong Eungmin Badi of the Boseong tradition and the novel Gang Sangryeon.

Kim Yeonsu's Pansori is known for its dramatic character. Influenced by his lifelong work in Changgeuk, he developed a style that values not only vocal artistry but also Neoreumsae, the expressive gestures and acting that bring Pansori vividly to life.

Song Jaeyoung is one of the leading male Sorikkun in the lineage of Lee Il-ju. Building on his teacher's tradition, he further refined its theatrical expression and is widely praised for his portrayal of Sim Bong-sa in the Changgeuk Simcheongjeon. He has been designated a Holder of Jeonbuk St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his Simcheongga. He is joined by master drummer Lee Tae-baek.



송재영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 제2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수상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 창극단장 역임
- 현)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외래교수



고수 이태백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교법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이수자
- 전주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 현) 목원대학교 공연콘텐츠학부 교수

판소리 다섯바탕
김차경의 만정제 흥보가

Five Pansori Stories
Kim Chagyeong's
Manjeongje Heungboga

8. 14. Fri 18: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글. 최동현

김차경 창 만정제 <흥보가>

만정제는 김소희의 판소리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김소희 명창의 호가 만정이기 때문이다. 김소희가 부른 <흥보가>는 정통 동편제 <흥보가>이다. 이 <흥보가>는 가왕 송흥록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제강점기 송만갑과 김정문을 거쳐 박록주, 강도근에게 이어졌다. 김소희는 일제강점기에 송만갑으로부터 <흥보가>를 일부 배운 뒤 박록주로부터 <흥보가>의 나머지를 배워 완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김소희의 <흥보가>는 박록주의 <흥보가>와 큰 흐름은 같아도 세부에 있어서는 김소희 자신만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문 바디'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만정제' 혹은 '김소희 바디'라고 부른다.

김차경은 어려서 강도근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김차경이 강도근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는 것은 동편제 소리꾼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뜻이다. 김차경의 전력을 다하는 창법은 바로 이런 바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남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차경은 상경하여 김소희로부터 <흥보가> 완판을 다 배웠다. 명실공히 김소희 <흥보가>의 충실한 계승자인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김태영 명고가 북을 잡는다.

Kim Chagyeong Performs the Manjeong
<Heungboga>

The Manjeongje is the Pansori style of master singer Kim So-hee (pen name Manjeong). Her Heungboga belongs to the authentic Dongpyeonje tradition, tracing its lineage from Song Heung-rok through Song Man-gap, Kim Jeong-mun, Park Rok-ju, and Gang Do-geun.

Kim So-hee first learned part of Heungboga from Song Man-gap and later completed the work under Park Rok-ju. Although based on Park Rok-ju's version, it bears Kim So-hee's own distinctive artistry, and is therefore known as the Manjeong Badi.

Kim Chagyeong first studied Pansori with Gang Do-geun, then mastered the complete Heungboga under Kim So-hee after moving to Seoul. Today, sh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successors to Kim So-hee's Heungboga. She is joined by master drummer Kim Taeyoung.



김차경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춘향가) 이수자
- 제36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문 대상(대통령상) 수상
- 제26회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전통예술부문 수상
-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 대상(문화예술국악대상 판소리부문) 수상
- 현)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예술감독



고수 김태영

-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이수자
- 제37회 전국고수대회 대머고수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 현)(사)국악진흥회 고수분과 위원장
- 신정악회 대표

판소리 다섯바탕

왕기석의 박봉술제 적벽가

Five Pansori Stories

Wang Giseok's

Park Bong-sulje Jeokbyeokga

8. 15. Sat 15: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글. 최동현

왕기석 창 박봉술제 <적벽가>

박봉술제 <적벽가>는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로 이어온 정통 동편제 <적벽가>이다. 박봉술은 구례 출신으로 부친인 박만조와 형 박봉래로부터 정통 동편제 판소리를 이어받았으나, 중간에 목이 상하여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암성’이란 발성법을 개발하여 크게 성공한 소리꾼이다. 동편제 <적벽가>는 유성준으로부터 임방울과 정광수로 이어진 것도 있으나, 이 <적벽가>는 임방울 이후 전승이 끊어졌다.

박봉술의 <적벽가>는 당대 제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이 <적벽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어졌다. 송순섭과 김일구가 이 <적벽가>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박송희, 김영자, 안숙선, 전인삼 등 많은 사람들이 <적벽가>를 전승했다.

왕기석은 오래 동안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심청전>에서 심봉사 역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목이 실하고 성량이 크며, 창극단에서 갈고닦은 너름새가 뛰어나다. 이번 공연은 남자가 불러야 제맛을 낼 수 있는 <적벽가>를 남자 명창 왕기석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고수에는 조용안 명고가 함께 한다.

Wang Giseok Performs the Park Bong-sulje <Jeokbyeokga>

The Park Bong-sulje Jeokbyeokga is an authentic Dongpyeonje version passed down through Song Mangap, Park Bongrae, and Park Bongsul. After overcoming a serious vocal injury, Park Bongsul developed his distinctive amseong vocal technique and became one of the greatest Sorikkun of his time.

His Jeokbyeokga was widely admired and passed on to many disciples. Song Sunseop and Kim Ilgu were designated Holder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is lineage, while Park Songhee, Kim Youngja, Ahn Sooksun, and Jeon Insam also continued the Park Bongsul Badi.

Wang Giseok performed for many years with the National Changgeuk Company and is especially acclaimed for his portrayal of Sim Bong-sa in Simcheongjeon. His rich voice, powerful delivery, and refined Neoreumsae make him ideally suited to Jeokbyeokga. He is joined by master drummer Jo Yong-an.



왕기석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 국립민속국악원장 역임
- 2017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
-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부 장원(대통령상) 수상
- 현)(사)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연합회 이사장



고수 조용안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장단 보유자
- 제15회 전국고수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역임
-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역임

판소리 다섯바탕

김세미의 추담제 수궁가

Five Pansori Stories

Kim Semi Performs the Chudamje Sugungga

8. 16. Sun 15: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글. 최동현

김세미 창 추담제 <수궁가>

추담제란 추담 홍정택 명창으로부터 이어져 온 소리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홍정택 명창의 호가 추담이기 때문이다.

홍정택은 부안 출신으로 임방울, 이기권 등에게 소리를 배운 뒤 김연수국악단 등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대 후반 전주에 정착한 후 줄곧 후진 양성에 전념한 소리꾼이다. 그래서 홍정택은 전주 판소리의 대부로 불린다.

홍정택은 <수궁가>를 장기로 삼았는데, 이 <수궁가>는 사설은 김연수의 것을 차용한 부분이 많지만, 곡조는 이기권의 것을 살려서 부른다. 부분적으로는 임방울의 영향도 강하게 드러난다. 홍정택의 소리는 여러 소리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초제라고 하지 않고 추담제라고 부른다.

김세미는 홍정택의 외손녀이다.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 홍정택으로부터 소리를 배웠으며, 후에 오정숙으로부터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를 배웠다. 김세미는 체구는 작지만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구성이 있다. 또한 전력을 다하여 고음으로 소리를 한다. 김세미는 추담 홍정택 판소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여기에 박종호 명고가 장단을 맞춘다.

Kim Semi Performs the Chudamje <Sugungga>

The Chudamje is the Pansori tradition established by master singer Hong Jeong-taek, whose pen name was Chudam.

Born in Buan, Hong Jeong-taek studied under Im Bangul and Lee Gi-gwon before joining the Kim Yeonsu Gugak Company. After settling in Jeonju, he devoted himself to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Sorikkun, becoming the leading figure of the Jeonju Pansori tradition.

His Sugungga combines the text of Kim Yeonsu's version with the melodic style of Lee Gi-gwon, while also reflecting the influence of Im Bangul. Because it blends several traditions, it became known as the Chudamje rather than the Dongchoje.

Kim Semi, Hong Jeong-taek's granddaughter, began studying Pansori with her grandfather and later trained under Oh Jeongsuk. Renowned for her powerful voice and expressive high-register singing, she faithfully carries on the artistry of the Chudam Badi. She is joined by master drummer Park Jongho.



김세미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수궁가)보유자
- 제28회 전국판소리 명창 경연대회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 현)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원
- (사)추담제 판소리보존회 이사장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강사



고수 박종호

- 제36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 제6회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상(대통령상) 수상
- 제2회 박동진 명창명고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수상
- 현)전통연희단 창해 대표

판소리 다섯바탕
예인협회 “In천지”

Five Pansori Stories
Art company IN CHEONJI

8. 12. Wed - 16. Sun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25,000원

땅의 신명, 하늘의 줄 — 전통연희와 줄놀이

하늘과 땅을 품는 국악 전문예술단체 예인협회 “In천지”가 판소리 다섯바탕의 여정에 신명 나는 잔치를 더한다. 이번 무대는 전통연희의 역동적인 멋과 줄놀음의 짜릿한 기예를 한데 모아, 대중과 함께 국악의 진정한 즐거움(樂)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먼저 힘찬 풍물 장단에 어우러지는 판굿과 상모놀음, 해학이 넘치는 사자춤과 버나놀이, 그리고 웅장한 용기놀이와 경쾌한 소고놀이가 ‘땅의 신명’을 깨운다. 이어 허공에 걸린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펼쳐지는 발재간과 유쾌한 재담의 ‘줄놀이’이 긴장감과 해학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완성하는 가장 한국적인 흥과 멋의 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지향하는 “In천지”의 무대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신명의 판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The Spirit of the Earth, the Rope of the Sky
— Traditional Performing Arts
& Tightrope Walking

IN THE WORLD IN CHEONJI, a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ompany, brings the vibrant spirit of Korean Yeonhui to Five Pansori Stories. Blending dynamic traditional performances with the breathtaking art of Jultagi (tightrope walking), the production showcases the joy (heung) of Korean performing arts.

The performance begins with a lively Pangut, Sangmo spinning, lion dance, Beona plate-spinning, dragon flag performance, and Sogo

drum dance, awakening "the spirit of the earth." It then leads into the thrilling Jultagi, where daring acrobatics and witty dialogue create both excitement and laughter.

Completed through the shared energy of performers and audience, this stage embodies the spirit of Korean tradition. Through the artistry of IN THE WORLD IN CHEONJI, audiences are invited to experience a vibrant pan where heaven and earth come together.



대표. 김재현(버나·기놀이)
줄꾼. 박회승
쇠. 조영두
장·버나. 전병문
장구. 이섬결, 정태영
북·기놀이. 광병철
북. 임지수
소고·줄받이·마부. 김솔윙
소고·사자. 이준희
소고·사자·12발. 배호철
태평소. 김한성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Young Pansori
Five Stories

8. 12. Wed - 14. Fri 13:30
8. 15. Sat - 16. Sun 11: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원

글.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소리꾼이라면 한 번쯤 :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의 무대에 대하여

소리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온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연습 소리에 이끌려 다음날 바로 국악원을 찾아가 아이, 텔레비전 화면 속 부채를 든 판소리 명창의 모습을 뚫어저쳐 바라본 아이. 방과 후 교실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객석에서 선배의 무대를 바라보다가. 시작은 제각각이었지만, 소리꾼의 길로 들어서게 한 첫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은 그 길을 걸어온 젊은 소리꾼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홀로 판소리 무대에 서는 자리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12년부터 시작한 이 무대는 어느새 15년의 역사를 가졌다. 역대 선정자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돌아온 답들에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다. "젊은 소리꾼이라면 한

번쯤 서야 하는 무대, 서고 싶은 무대"라는 것. 학창 시절 객석에서 선배들의 공연을 보며 다짐했던 소리꾼들이, 이 무대에 오른 뒤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사슬이 이어져 왔다.

판소리는 스승의 정성과 제자의 지고지순한 학습으로 지난한 공부를 통해 이어져 왔고, 선배들의 활동 무대를 보며 후배들은 흠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왔다. 이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은 호흡으로 전해 온 그 흐름이 한 곳으로 모여 응축된 무대이다. 그리하여 선정된 소리꾼들은 이 무대 위에서, 명실공히 판소리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단단히 거듭난다.

15년간 이 무대를 거쳐 간 소리꾼 58명은 이렇듯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 다만 나 역시 판소리라는 흐름 속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바람이 있다. 무대 위의 순간이 소중한 만큼, 무대 이후의 시간도 소중하다. 앞으로 이들이 서로 만나 함께 소리를 나누고, 새로운 판을 함께 벌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등용문을 넘어 판소리 공동체의 살아있는 뿌리가 될 것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역시 이 무대를 면면히 이어나가,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빛내며 함께 성장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지속 성장·발전하기를 바란다.

A Stage Every Sori Singer Dreams of:
Young Pansori Five Stories

Every Sori Singer has a beginning. It may start with hearing Pansori over a wall, watching a master singer on television, joining an after-school class, or simply being inspired by a performance. Though each journey is different, every Sori Singer remembers the moment that first led them to Pansori.

Young Pansori Five Stories is the stage where promising Sori Singers give their first full solo Pansori performance. Since its launch by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n 2012, it has become the stage every young Sori Singer dreams of performing on. Those who once watched from the audience now stand on stage,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Pansori has been preserved through generations of masters and disciples. This program brings that living tradition together, introducing young artists who will carry Pansori into the future.

Over the past fifteen years, fifty-eight Sori Singers have appeared on this stage. Its value lies not only in the performances themselves, but in the lasting artistic community they create.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opes Young Pansori Five Stories will continue to grow as one of the festival's signature programs for years to come.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Young Pansori
Five Stories

8. 12. Wed - 14. Fri 13:3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원

김세종제 춘향가
8. 12. Wed 13:30



이수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
- 2026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 제19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은상 수상
- 제18회 명창박록주전국국악대전 고등부 최우수상
- 2020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장학생 선정



고수 고정훈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41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
- 현)(사)화고판소리고법보존회 이사

강산제 심청가
8. 13. Thu 13:30



박시본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
- 2026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 제25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판소리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학생부 금상
- 제26회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고등부 금상 (교육부장관상)



고수 조용안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장단 보유자
- 제15회 전국고수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역임
-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역임
-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역임

동편제 흥보가
8. 14. Fri 13:30



최광균

- 전) 국립창극단 인턴 단원
- 중앙대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석사
- 군산세안금 제16회 전국판소리대회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정단원



고수 윤영진

- 제21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 일반부 장원
- 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정단원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Young Pansori
Five Stories

8. 15. Sat - 16. Sun 11:0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10,000원

박동진제 적벽가
8. 15. Sat 11:00



고한돌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적벽가) 이수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과 석사 과정
- 제36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금상
- 2019 현대자정몽구재단 예술장학생 선정



고수 강태영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졸업
- 제33회 금파강도근 전국판소리고법대회 최우수상
-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고법 일반부 차상
-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대통령배전국농악경연대회 대상

미산제 수궁가
8. 16. Sun 11:00



소장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수궁가) 이수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 및 전문사 수료
- 제43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고수 김한샘

- 서울시 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졸업
- 제44회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대상(국무총리상)

산조의 밤
〈박대성, 박범훈〉

Night of Sanjo
Park Daeseong
& Park Beomhun

8. 15. Sat 19:3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글. 윤중강
국악 평론가

2026년 〈산조의 밤〉은 박대성 명인과 박범훈 명인이 함께한다. 그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두 분의 명인을 모시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산조계의 최고의 명인 두 분을 소리축제가 25주년을 맞으면서 동시에 모신다는 건 큰 행복이다.

산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산조는 특정 지역의 악기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피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사용되는 악기이지만, 특히 경기지역의 특성을 많이 지닌 악기다. 민속악에서 사용하는 산조아쟁은 정악 아쟁의 축소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것과는 별도의 악기다. 산조아쟁은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발전하면서 성장한 악기다. 여성국극에선 남도의 계면조가 빠지지 않는데, 산조아쟁은 이런 정서를 표현하기에 딱 좋은 악기였다. 계면조는 특히 전라도 지방의 선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연주하는 피리산조는 경기도 지방에, 아쟁산조는 전라도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두 명인의 음악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큰 가치가 있을까?

첫째, 계보 면에서 그렇다. 이 산조의 연원을 올라가면 거기서 거장의 모습이 보인다. 한 사람은 한성준(1874~1941)이요, 또 한 사람은 박종기(1879~1941)이다. 한성준은 충남 홍성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활동한 예인들은 거의 모두 경기 남부 출신이다. 박종기는 진도 출신이며, 이번에 연주하는 박대성 명인 또한 한집안 출신이다.

피리는 원래 '산조'라는 장르로 정착하기 전에 '시나위'라고 했다. 흔히 '산조'는 독주, '시나위'는

중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해방 이전 민속악의 시각으로 보면, '산조'는 남도음악적 성격이 강한 음악을 말하고, '시나위'는 경기음악적 성격이 강한 음악을 말했다. 훗날 '경기시나위'와 '남도시나위'로 구분하게 되지만, 원래의 용어로 접근하면 '시나위(신아위)'는 경기 음악을 가리킨다.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스승의 가락을 이어받아 이를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청출어람이라 할 수 있다. 두 분은 이 산조의 창시자이지만, 더불어 현재로서는 이 산조를 두 분의 명인만큼 잘 연주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The 2026 Night of Sanjo brings together two of Korea's greatest masters, Park Daeseong and Park Beomhun.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long hoped to present these two artists on the same stage, and welcoming them together for the festival's 25th anniversary is especially meaningful.

Sanjo has developed through regional traditions, with each instrument reflecting the musical character of its region. Although the Piri is played throughout Korea,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yeonggi tradition. The Sanjo Ajaeng, developed through the tradition of Women's Gukgeuk, became the ideal instrument for expressing the emotional Gyemyeonjo style rooted in Jeolla.

Accordingly, the Piri Sanjo performed here represents the Gyeonggi tradition, while the Ajaeng Sanjo embodies the musical spirit of Jeolla. Together, these two masters reveal the distinctive beauty of both traditions.

Their artistry also reflects remarkable musical lineages. The roots of these traditions lead back to two great masters, Han Seong-jun (1874-1941) and Park Jong-gi (1879-1941). Han Seong-jun's tradition became closely linked to southern Gyeonggi, while Park Jong-gi, from Jindo, passed down a lineage that continues through Park Daeseong.

Before Sanjo became an established genre, Piri music was known as Sinawi. Historically, Sanjo referred mainly to the southern (Namdo) tradition, while Sinawi referred to the musical style of Gyeonggi. Although the meanings later evolved, this distinction reflects the regional roo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hat these two masters share is their ability to inherit their teachers' musical language and elevate it even further. Their artistry truly embodies the spirit of cheongchula-ram—surpassing one's teacher through dedication and mastery. Even today, few performers equal the depth and authority of their Sanjo.

산조의 밤

박대성류 아쟁산조

Night of Sanjo
Park Daeseong Ajaeng Sanjo

8. 15. Sat 19:3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글·사회. 윤중강

박대성 명인은 박종기라는 예인 집안의 피를 이어받아 일찍이 음악성이 뛰어났고, 스승 한일섭의 가락을 이어받았다. 한일섭은 ‘여성국극’ 또는 ‘계면조 중심’의 음악성을 바탕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산조를 만들어냈다. 여러 정서가 존중되며 공존하는 산조가 바로 박대성류 아쟁산조인데, 특히 그의 연주는 매우 깔끔하고 담백하다. 아쟁은 속성상 감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박대성의 연주는 감정의 과잉을 다스리며 매우 사유적인 산조로 자리매김했다. 우직함과 깨끗함, 섬세함과 다정함이 공존하는 산조이다.



박대성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보유자
· 국가문화예술발전 표창
· 박대성류 아쟁산조 보존회 대표



고수 이치중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동래아류 장구 이수자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학춤 전승교육사
· 현) (사)일통고법보존회 이사 및 경남지회장
이치중 타악 연구소 대표
데라클 엔터테인먼트 예술총감독

Master Park Daeseong, a descendant of the artistic lineage of Park Jong-gi, showed exceptional musical talent from an early age and inherited the Sanjo tradition of his teacher, Han Il-seop. Drawing on the musical aesthetics of Women's Gukgeuk and the gyemyeonjo mode, Han Il-seop created a balanced Sanjo style.

Park Daeseong's Ajaeng Sanjo embraces a wide range of emotions while maintaining remarkable clarity and restraint. Though the ajaeng is naturally expressive, he avoids excess and creates a deeply reflective style. His Sanjo combines strength, steadfastness, delicacy, and warmth.

산조의 밤

박범훈류 피리산조

Night of Sanjo
Park Beomhun Piri Sanjo

8. 15. Sat 19:30
모악당 Moak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박범훈류 피리산조의 뿌리는 지영희류이다. 지영희는 한성준의 제자로, 한성준이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조직했을 때 조교 역할을 했고, 해방 후에는 ‘지영희 무용연구소’를 개설해 경기음악을 중심으로 많은 춤음악과 연주곡을 탄생시켰다. 이런 지영희의 출중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박범훈이다. 박범훈류 피리산조는 ‘연주적 기법’뿐 아니라 ‘작곡적 짜임새’가 돋보이는 산조이다. 피리 음역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주법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밝고 희망찬 생의 긍정 에너지가 넘친다.



박범훈
·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 박범훈류 피리산조 보존회 대표
·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 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



피리(시연) 오세진
·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이수자
· 현) 성남시립국악단 피리 수석
박범훈류 피리산조 보존회 상임이사



고수 박천지
· 중앙대학교 지휘전공 석사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
·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역임
·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 현)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The Park Beomhun Piri Sanjo traces its roots to the tradition of Ji Yeong-hui. A disciple of Han Seong-jun, Ji established the Joseon Music and Dance Research Institute with his teacher and later founded the Ji Yeong-hui Dance Research Institute, where he developed the Gyeonggi musical tradition. Park Beomhun is one of his most distinguished disciples.

The Park Beomhun Piri Sanjo is noted for both its refined performance techniques and its well-crafted musical structure. Expanding the expressive range of the piri through diverse techniques, it creates a vibrant, dynamic style filled with brightness, vitality, and a positive spirit.

오늘의 시나위

Today's Sinawi

8. 16. Sun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글. 김상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통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축적되어 온 역사이다. 전통의 본질은 과거의 예술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변형과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력을 얻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통은 과거의 유산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창조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스승의 음악을 계승한다는 것 또한 단순한 모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전승의 과정에서 스승의 음악을 답습하고 그 어법과 미학을 체화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계승은 그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감각, 그리고 시대적 인식을 더해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킨다는 데에 그 진정한 가치가 있다. 즉, 살아 있는 전통은 답습에서 출발하지만, 창작을 통해 완성된다.

특히 산조는 이러한 전통과 창작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악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산조를 대하는 예술가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학습의 방향과 예술적 고민은 달라진다. 과거 명인의 음악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혹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모색할 것인지에 따라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산조는 전승과 창작, 보존과 변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예술이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오늘의 시나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무대이다. 참여한 연주자들은 전통음악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음악적 해석과 개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형과 창작을 시도하였다. 또한 서울과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뛰어난 연주자 9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음악적 언어를 나누고 협력하며 하나의 무대를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과 음악적 경험이 만나 만들어낸 음악은 전통이 특정한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시나위」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오늘날 전통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예술적 실험이다. 이 무대는 전통의 본질이 과거의 재현이 아닌 창작과 변화 속에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산조가 미래 세대와도 살아 숨 쉬는 예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Tradition is not something fixed, but a living history shaped through the continuous creativity and experimentation of each generation. Its essence lies not only in preserving the past, but in understanding tradition deeply and renewing it through natural transformation and new artistic expression. Tradition is both a cultural legacy and an ongoing act of creation.

Inheriting a master's music is also more than imitation. Learning a teacher's musical language and aesthetic is essential, but true inheritance comes when artists add their own experience, sensibility, and perspective to create something new. Living tradition begins with transmission and is fulfilled through creation.

Sanjo best illustrates this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 and creativity. Whether an artist seeks to recreate the music of past masters or build on their artistic spirit shapes both performance and artistic direction. Sanjo continues to evolve through the balance between preservation and innovation.

From this perspective, Today's Sinawi 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s especially meaningful. Rather than simply reproducing tradition, the participating musicians present their own interpretations and creative voices. Nine outstanding performers from Seoul and Honam come together to share their musical languages, showing how tradition continues to grow through exchange and collaboration.

More than a performance, Today's Sinawi is an artistic exploration of where Korean traditional music is headed. It shows that the essence of tradition lies in continual creation and transformation, while revealing the enduring vitality of Sanjo for future generations.

오늘의 시나위

Today's Sinawi

8. 16. Sun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오늘의 시나위」는 단순히 시나위라는 연주형태를 가진 무대가 아니다. 산조의 선율들을 바탕으로 경기제, 남도제, 메나리제, 음악적 특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다른 음악적 어법과 지역적 특성이 만나고 교차하면서 즉흥성과 현장성을 가진 시나위의 자유로움이 이번 연주의 특징이다.

음악은 지영희와 박범훈이 정립한 대풍류와 산조의 섬세한 선율과 경쾌한 어법을 녹여내면서, 서용석과 김상연의 산조 가락을 중심으로 시나위 특유의 즉흥성과 상호작용을 결합하여 자유로운 긴장감과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안기옥의 가야금 가락을 중심으로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의 구성을 더하고 메나리제는 연주자들이 즉흥으로 연주한다.

이 작품에서 음악은 단순히 장단의 순차적 진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각 장단 안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음악적 어법과 선율들이 연주자들의 해석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다시 독립적인 개성을 드러내며 흩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만남과 분리, 조화와 긴장은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음악적 구조이자 「오늘의 시나위」가 지닌 핵심적인 미학이다.

특히 이러한 음악적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 고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민철과 김한샘이 함께하며, 장단의 변화와 즉흥적 상호작용 속에서 연주자들의 호흡을 조율하고 음악의 긴장과 균형을 완성한다. 「오늘의 시나위」는 전통음악이 지닌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이자, 오늘의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산조의 모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글·연출·음악감독. 김상연
타악. 김민철
해금. 김승태
대금. 박신의 변상엽

아쟁. 서수진
거문고. 이재하
가야금. 장삼수
피리. 최광일

Today's Sinawi is more than a performance of the traditional Sinawi style. Built on the melodic language of Sanjo, it brings together the Gyeonggi, Namdo, and Menari traditions, allowing different regional styles to meet through the freedom, spontaneity, and immediacy that define Sinawi.

The music blends the refined melodies of Daepungnyu and Sanjo established by Ji Yeong-hui and Park Beomhun with the Sanjo traditions of Seo Yong-seok and Kim Sangyeon. An Gi-ok's gayageum melodies and Lee Jaeha's geomungo arrangements enrich the work, while the Menari passages are freely improvised by the performers.

Rather than following a simple sequence of rhythmic cycles, the music continually brings together and separates different regional idioms through the performers' interpretations. This interplay of unity and individuality, harmony and tension, forms the central musical aesthetic of Today's Sinawi.

Master drummers Kim Mincheol and Kim Hansaem play a vital role, guiding the ensemble through changing rhythms and improvisation while maintaining balance and momentum. Today's Sinawi explores the diversity and creative potential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resenting a new vision of Sanjo shaped by today's artists.



[전주세계소리축제×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굿〉

Gangneung Danoje Festival
Preservation Society
〈Gangneung Danogut〉

8. 13. Thu 18: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무녀. 빈순애
악사. 김운석 정지용 김민석 이견환 성휘경 원현식 김영우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천년을 이어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국가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를 주최하고 전승하는 단체다.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을 바탕으로 전통의 저변을 넓혀가는 이들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강릉단오굿’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타악 장단과 무녀의 춤, 노래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민중신앙 의식이다.

이번 공연은 판을 정화하는 ‘부정굿’과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굿’, 그리고 현란한 타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드렁갱이’로 구성된다. 단오굿 음악은 푸너리, 청보, 제마수 등 정교한 장단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단에 맞춰 변모하는 무녀의 역동적인 노래와 춤, 그 사이사이 고음의 기성을 지르며 흥을 돋우는 악사들의 ‘바라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타악 리듬과 무녀의 소리, 악사의 기성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한국 전통 연희의 생생한 신명과 독창적인 굿 음악의 진수를 전한다.



The Gangneung Danoje Preservation Society preserves and presents Gangneung Danoje, a millennium-old tradition recognized as both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Based on ancestral rites, Danogut, and the Gwanno Mask Drama, the society continues to carry this living tradition forward. Gangneung Danogut, presented in this performance, is a distinctive folk ritual combining intricate percussion rhythms with the songs and dances of the mudang (female shaman).

The program consists of Bujeonggut, a ritual of purification; Chugwongut, offering prayers for peace and well-being; and Deureonggaengi, a dazzling display of virtuosic percussion. The music features richly varied rhythmic patterns such as Puneri, Cheongbo, and Jemasu.

A highlight is the expressive singing and dance of the Mudang, joined by the musicians' spirited Baraji—high-pitched vocal calls that heighten the excitement. Together, percussion, ritual songs, and vocal calls vividly convey the vitality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the unique artistry of Gut music.

김소라
〈여성농악 - 안녕, 평안굿〉

Kim Sora
〈Women's Nongak
- Hello & Peace Ritual〉

8. 14. Fri 18: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연출·예술감독. 김소라	팬과리. 박소현
총괄PD. 하늘벗	바라. 박지연
작곡. 김현섭	장·채상소고. 이보현 김지연
안무감독. 유재성	장구. 오준희 정시온
연희감독. 현승훈	북. 구태경
음악감독·작곡·가야금. 임지혜	무용. 김다현 윤수진 천성은
피리·생황·태평소. 홍지혜	소리. 이수현 임지현
아쟁. 김슬지	바라·버나. 황지원
해금. 소명진	북·버나. 김유영

타악연희 솔리스트이자 예술감독 김소라가 이끄는 '김소라 콜렉티브'는 전통예술의 현대적 변주를 시도하며 독창적인 현대 연희를 선보이는 창작 프로젝트다. 김소라 〈여성농악 - 안녕, 평안굿〉은 '202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초연작'으로 한국 전통 농악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간과되었던 여성 연희자(농악 연희자, 무녀)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무대다.

작품은 호남우도농악과 동해안 별신굿의 장단, 몸짓, 무가를 융합하여 현대적 사운드시케이프와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과거 남성 중심의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여성들의 강인함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젠더의 개념을 넘어 현대 공연 양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과거의 유산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한 이 무대는 모두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평안과 위로를 건넨다.



Led by percussion performer and artistic director Kim Sora, the Kim Sora Collective reimagines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hrough a contemporary artistic language. Women's Nongak - Hello, Peace Ritual, selected as a premiere work of the 2025 Performing Arts Creation Factory, sheds new light on the history and artistic legacy of women performers—Nongak artists and mudang—whose contributions have long been overlooked.

The work combines the rhythms, movements, and ritual songs of Honam Udo Nongak and Donghaean Byeolsingut with contemporary sound and movement. It celebrates the resilience of women who built their own artistic traditions within a male-dominated culture while presenting a new vision of Nongak for today's stage.

By reinterpreting tradition through a modern perspective, Women's Nongak - Hello, Peace Ritual offers a heartfelt wish for peace, harmony, and well-being, bringing warmth and comfort to contemporary audiences.

고창농악보존회 〈만두레 풍장굿〉

Gochang Nongak
Presevation Association
〈Mandure Pungjang-Gut〉

8. 15. Sat 18: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고창농악보존회

구재연	고광율	고광서
임성준	고미순	김상원
한금주	안순금	김선월
김영옥	박성준	김애경
박길동	이순근	김형순
유연순	이순삼	류영술
이성수	안윤호	문유영
최길	정규홍	장아름
박진숙	정옥임	조민경
정영선	최세균	한현주
이광휴	홍예림	허복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농악)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 보유단체인
(사)고창농악보존회는 1998년 발족 이후 고창농악의
맛과 멋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후진 양성에
힘써온 단체다. 매년 수천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마을굿 복원 및 아카이빙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전통문화예술의 가치를 올곧게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만두레 풍장굿》은
전통적인 논매기 작업 중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만두레’ 때 치던 일과 놀이의 굿이다. 초벌,
두벌매기와 달리 세벌매기인 만두레 시기에는 힘든
노동을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온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잔치를 벌였다.

고창농악보존회는 전통 농경사회에서 가장 흥겹고
성대하게 진행되었던 이 공동체 축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농민들의 땀방울을 신명 나는
장단으로 승화시켰던 고창 풍장굿의 정수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통 연희가 지닌 진정한 화합과 축원의
에너지를 선사한다.



The Gochang Nongak Preservation Association,
the official preservation organization for
Gochang Nongak, recognized as both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a
Jeonbuk St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preserved and promoted this tradition since
1998 through performer training, village ritual
restoration, and archival work.

Mandure Pungjanggut, presented in this
performance, recreates the music and festivities
of Mandure, the final stage of weeding in the
traditional farming cycle. As the hardest work
came to an end, villagers gathered to celebrate
together, praying for a rich harvest through
music, dance, and communal performance.

The Gochang Nongak Preservation Association
vividly revives this traditional agricultural
festival. Through the vibrant rhythms and festive
spirit of Gochang Pungjanggut, the performance
conveys the joy, solidarity, and blessings at the
heart of Korea'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ORI SPECTRUM

-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 소리 시네마
-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어반자카파·심수봉
 - 두번째달×장명서
 - 상자루
 - 악단광칠
 - 컨트리공방
-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남원시립국악단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Namwon Municipal
Gugak Troupe
Creative Gugak Theatre
〈A Father's Liberation Diary〉

8. 13. Thu 19:30
연지홀 Yeonji Hall
14세 이상 Over 14 Years
20,000원

내가 알던 아버지는 진짜일까?
갈라진 시대, 사람을 먼저 품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평생 유머라곤 없이 뿔속까지 진지한 사회주의자로 살아온 아버지가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기막힌 3일장이 시작된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곁돌았던 딸 고아리. 상주가 된 그녀는 냉소와 허탈함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지만 빈소를 찾은 사람들은 그녀가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버지를 '삼촌'이라 부르며 상주 노릇을 하는 장례식장 사장, 보수 신문을 읽으며 아버지와 투닥거리던 교련 선생, 맞담배를 피우며 우정을 나눈 노란 머리 소녀, "빨갱이 잘 죽었다."며 행패를 부리는 상이군인까지.

사상의 잣대로 아버지를 재단해 왔던 고아리는 조문객들을 통해 아버지의 진짜 맨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을까?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 《아버지의 해방일지》, 국악의 옷을 입다.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이 선사하는 웃음과 눈물의 3일장



Was the father I knew really who he was?
A story of a father who chose people over ideology in a divided era.

A lifelong socialist who never lost his convictions, a father dies unexpectedly, setting in motion an extraordinary three-day funeral. His daughter, Go Ari, has spent her life resenting him while carrying the burden of being known as the "daughter of a partisan." As the chief mourner, she greets visitors with bitterness and distance. Yet one by one, the mourners reveal a side of her father she has never known.

The funeral hall owner who calls him "Uncle."
A military training teacher who argued politics with him. A blond-haired girl who shared cigarettes and friendship with him. Even a disabled war veteran who storms in shouting, "Good riddance to a communist."

Having judged her father through ideology alone, Go Ari gradually discovers the man he truly was. Can she finally understand her father—and find liberation of her own?

〈A Father's Liberation Diary〉, one of Korea's most celebrated contemporary novels, is reimagined as an original Gugak music drama. Presented by the Namwon Municipal Gugak Orchestra 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t transforms one unforgettable three-day funeral into a moving journey of laughter, tears, and reconciliation.

남원시립국악단

남원시립국악단은 1921년 민간단체로 출발하여 1983년 시립국악단으로 승격된 이래, 100년이 넘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국악단이다.

우리 전통문화의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상설창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2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그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2001년 북한 평양에서 최초로 창극 《춘향전》을 공연하며 민족 화합의 무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베로나와 밀라노 순회공연을 통해 현지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현재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해외 공연을 펼치며 한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Namwon Municipal Gugak Troupe

Founded in 1921 as a private arts organization and officially established as the Namwon Municipal Gugak Troupe in 1983, the orchestra is one of Korea's leading Gugak ensembles with more than a century of tradition.

Its signature Gugak Theatre, which reinterprets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r contemporary audiences, was selected twice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Local 100, recognizing the country's outstanding regional cultural attractions.

The orchestra has also built a strong international presence. It became the first Korean Changgeuk company to perform <Chunhyangjeon> in Pyongyang in 2001, and toured Verona and Milan in Italy in 2010 to critical acclaim. Today, it continues to perform in Japan, Chin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beyond, promoting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round the world.



예술감독 최용석

남원시립국악단 최용석 예술감독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춘향가) 이수자로, 판소리와 창극을 직접 쓰고 연출하며 무대에 오르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이다. 2002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를 창단해 《소녀 춘향》, 《닭들의 꿈 날다》, 《닥터2478》 등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며 창작 판소리와 소리극의 저변을 넓혀왔다.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창작국악극대상 최우수상 및 남자창우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 그는 정지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작으로 선보인다. 이번 작품에서 그는 판소리의 성음과 사실이라는 전통적 뿌리 위에 현대적 편곡과 리드미컬한 창작 음악을 접목하여, 이념을 넘어선 '사람'의 이야기를 생생한 극적 리듬으로 그려낸다.



Artistic Director Choi Yongseok

Choi Yongseok, Artistic Director of the Namwon Municipal Gugak Troupe, is a performer certified i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nsori <Chunhyangga>. A versatile artist, he writes, directs, and performs Pansori and Changgeuk.

In 2002, he founded Pansori Factory Badaksori, creating works such as <Girl Chunhyang>, <When Chickens Dream of Flying>, and <Doctor 2478>, while expanding contemporary Pansori and music theatre. His work has received major honors, including the Grand Prize at the Seoul Children's Theatre Awards, the Edaily Culture Awards, and the Korean Creative Gugak Music Drama Awards.

This year, he presents <Father's Liberation Diary>, adapted from Jeong Ji-a's novel, as an invited production 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Blending the vocal and narrative traditions of Pansori with contemporary orchestration and newly composed music, the production tells a deeply human story that transcends ideology.

8. 13. Thu - 14. Fri 11:00-17:00
종회의장
Conference room,
Exhibition hall 1F
전 연령 관람 가능
All ages admitted
무료 Free



8/13(목)	11:00-12:20	이화중선
	12:40-13:30	그릇된 소녀
	13:50-16:00	서편제
	16:00-16:40	관객과의 대화(GV) 서편제 김명곤
8/14(금)	11:00-13:10	서편제
	13:30-14:20	그릇된 소녀
	14:40-16:00	이화중선
	16:00-16:40	관객과의 대화(GV) 이화중선 백학기, 정이화

전통예술 판소리와 대중 매체인 영화가 만나 색다른 서사 예술로 확장된다. '소리 시네마'는 판소리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영화를 통해, 우리 소리의 매력을 스크린 기반의 현대적 시각 언어로 새롭게 즐기도록 기획되었다.

대표적인 명작 <서편제>를 비롯해 <이화중선>등 판소리의 정서가 영상미와 결합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무대 위에서 즐기던 판소리의 감각을 스크린으로 넓혀 관객에게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특히 주요 작품은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영화와 판소리를 넘나드는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전통예술을 새롭게 감각하고 향유하는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Traditional Pansori meets cinema in a new form of storytelling. Sori cinema Project presents films inspired by Pansori, inviting audiences to experience the beauty of Korea's traditional vocal art through the visual language of film.

The program features classics including <Seopyeonje> and <Lee Hwa-jungseon>, showing how the spirit of Pansori comes alive on screen. Expanding Pansori from the stage to cinema, it offers audiences a fresh and engaging way to experience this unique art form.

Selected screenings are followed by GV (Guest Visit) sessions, where audiences can meet filmmakers and artists to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film and Pansori. Through these conversation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re rediscovered in a familiar and contemporary medium.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어반자카파·심수봉 그 여름

[JISF × Jeonbuk C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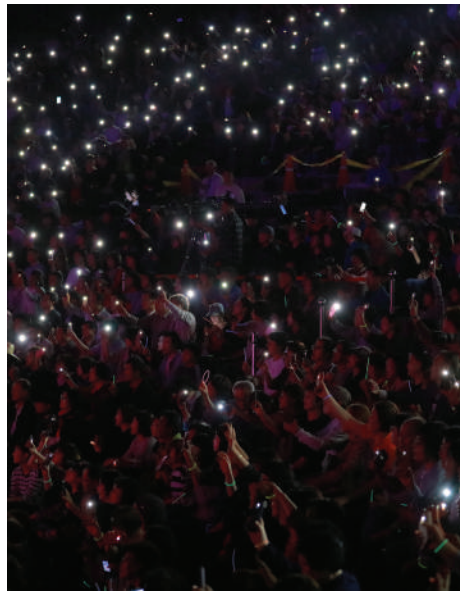
Urban Zakapa · Sim Soo-bong
THAT SUMMER LIVE

8. 15. Sat - 16. Sun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어떤 계절은 노래로 남는다

2026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새로운 25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판'을 펼친다. 올해의 주제인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의 의미를 담아, 전북CBS와 함께 선보이는 <그 여름> THAT SUMMER LIVE는 축제의 마지막 주말을 대중음악의 짙은 감성으로 채우는 무대다.

전통과 예술성을 중심에 두었던 축제의 영역을 확장하여, 관객의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판을 마련했다. 한여름에 만나는 서늘한 겨울 감성의 하모니부터, 시대의 명곡에 우리 소리의 결을 덧입힌 무대까지.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닌 두 아티스트의 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소리'가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다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호흡이 된다.

축제의 열기 속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관객의 마음에 머물 한여름 밤의 감성 라이브로 관객을 초대한다.



Some seasons live on through songs.

In 2026,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marks the beginning of its next 25 years with a special stage. Reflecting this year's theme, "Breath of Sori, Gathering into One Stage," <THAT SUMMER LIVE>, presented with Jeonbuk CBS, fills the festival's final weekend with the warmth and emotion of popular music.

Expanding beyond its traditional roots, the festival offers a stage that awakens memories and emotions through familiar songs. From cool winter harmonies in the height of summer to beloved classics enriched with the colo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wo distinctive artists turn Sori into song—and song into a shared connection between people.

Join us for a midsummer night of live music that stays close to the heart, long after the festival ends.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어반자카파

[JISF × Jeonbuk CBS]
Urban Zakapa
THAT SUMMER LIVE

8. 15. Sat 16: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Urban Zakapa: Winter at the Tip of Your Nose

Korea's beloved vocal group Urban Zakapa brings a cool twist to a midsummer evening. Their flawless three-part harmonies, accompanied by a full live band, create a rich and intimate concert experience.

Known for ballads that evoke the moods of autumn and winter, the trio's heartfelt songs shine all the more amid the festival's summer energy, stirring memories and emotions shared across generations. Experience Urban Zakapa's signature live performance, where the cool breath of winter quietly settles into the heart of summer.

어반자카파: 코끝에 겨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가 뜨거운 한여름 밤, 서늘하고도 짙은 계절의 반전을 선물한다. 세 사람의 완벽하고 섬세한 하모니는 풍성한 풀세션 라이브와 어우러져 관객의 귓가를 단숨에 매료시킨다.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가을·겨울의 정취를 품은 명곡들은 축제의 열기 속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빛나며, 세대를 아우르는 깊은 공감과 아련한 감성을 자극한다. 한여름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어반자카파만의 독보적인 라이브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전북CBS]
심수봉

[JISF × Jeonbuk CBS]
Sim Soo-bong
THAT SUMMER LIVE

8. 16. Sun 16:00
연지홀 Yeonji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심수봉: 푸른 떨림

독보적인 음색으로 시대를 관통해 온 레전드 아티스트 심수봉이 전주세계소리축제만의 특별한 결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깊고 짙은 목소리에 우리 악기 해금의 애절하고 섬세한 울림을 더해,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중음악 명곡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대중적인 친숙함 속에 한국적 소리의 정서를 담아내며 축제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맞닿는 이 무대는, 세대를 초월하여 관객의 마음에 묵직한 감동과 잊지 못할 '푸른 떨림'을 선사할 것이다.

Sim Soo-bong: Blue Resonance

Legendary singer-songwriter Sim Soo-bong comes to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with a stage created especially for this occasion. Her unmistakable voice joins the delicate sound of the haegeum, offering fresh interpretations of her beloved classics.

Blending familiar popular songs with the emotional depth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performance perfectly reflects the spirit of the festival, delivering a lasting Blue Resonance that will stay with audiences across generations.

두번째달×장명서

Second Moon

×

Jang Myeongseo

8. 13. Thu 21: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두번째달은 '태초에 달이 두 개였다면?'이라는 상상력으로 색다른 에스닉 퓨전 사운드를 선보이는 월드 뮤직 밴드다. 2005년 데뷔 이후 크로스오버, 드라마 OST, 국악을 넘나들며 폭넓은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국악 프로젝트 《판소리 춘향가》로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 부문을 수상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와 북미 투어 등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두번째달과 가객 장명서가 차려낸 음악의 성찬 《진찬(進饌)》. '진찬'은 왕에게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리며 온 마음으로 예를 다하던 종묘제례악의 음악이다. 그 옛날 가장 존엄한 존재를 향했던 정성 그대로, 두번째달과 가객 장명서가 관객을 위한 깊고 따뜻한 음악의 성찬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올해 8월 말 발매를 앞둔 정규 3집 《Autopilot》의 수록곡 중 아직 싱글로도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 트랙들을 라이브로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휘슬·만들린 김현보

베이스 박진우

기타 이영훈

건반·아코디언 최진경

바이올린 조윤정

드럼 박종선

보컬 장명서



Second Moon is a world music band renowned for its imaginative ethnic fusion sound, inspired by the question, "What if there had been two moons at the beginning of time?" Since its debut in 2005, the band has explored crossover music, drama soundtrack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Their Pansori Chunhyangga project won Best Crossover Album at the 14th Korean Music Awards, and they have expanded their international presence through performances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Closing Ceremony and overseas tours.

Together with vocalist Jang Myeongseo, Second Moon presents Jinchan (進饌), a musical banquet inspired by the royal ceremonial music of Jongmyo Jeryeak, where offerings were presented with the utmost reverence. Carrying that same spirit of devotion, they invite audiences to a heartfelt musical feast. The performance will also feature the live premiere of unreleased tracks from Second Moon's forthcoming third album, Autopilot, ahead of its release at the end of August.

상자루

SANGJARU

8. 14. Fri 21: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타악. 권효창

기타. 조성윤

아쟁. 남성훈

상자루는 팽과리·장구·아쟁의 날것 그대로의 음색과 기타·베이스의 현대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엮어, 장르의 경계를 지워내는 3인조 전통 창작음악 밴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KB소리상’ 수상을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무대를 넘나들며 월드뮤직 씬에서 독창적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상자루의 대표 레퍼토리 《KOREAN GIPSY》는 전통을 품고 길을 떠나는 ‘유랑하는 예술가’의 이미지를 통해 오늘의 국악을 이야기하는 공연이다. 집시 재즈가 자유의 감각을 품고 있다면, 이들의 ‘코리안 집시’는 한국의 장단과 연희가 가진 살아있는 즉흥성과 공동체성을 품고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 연희의 본질인 ‘흥’과 ‘판’, 그리고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현대적인 사운드로 풀어낸다. 농악·민요·굿판의 구조를 현대적인 리듬과 록, 재즈적 즉흥성으로 재해석하여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마저 붙잡았던 옛 광대들의 생생한 에너지를 지금의 무대 위로 다시 펼쳐 보인다. “전통은 어떻게 오늘의 음악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상자루는 무대 위에서 시원하게 답한다. “그저 상자루랑 놀다 가세!”



SANGJARU is a three-member contemporary traditional music band that blends the raw timbres of kkwaenggwari, janggu, and ajaeng with the energy of guitar and bass, dissolving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Since receiving the KB Sori Award 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e group has built a distinctive presence on the global world music scene, performing across Europe, Asia, and the United States.

Their signature production, KOREAN GIPSY, portrays the image of a wandering artist carrying tradition on the road. Like Gypsy jazz, it celebrates freedom, while embracing the improvisation, rhythmic vitality, and communal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Reinterpreting the essence of Korean performance—heung, pan, and direct audience interaction—through contemporary sounds, the group fuses nongak, folk songs, and gut with rock, jazz, and modern rhythms, reviving the vibrant energy of Korea’s traveling entertainers. SANGJARU answers the question, “How does tradition become the music of today?” with a simple invitation: “Come and play with SANGJARU!”

악단광칠

ADG7

8. 15. Sat 21: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보컬. 유월 초령
대금. 김약대
피리·생황. 이만월
가야금. 원만동마루
아쟁. 김최종병기활
타악. 전궁달 선우바라바라바라밤
사운드엔지니어. 정새롬
기획PD. 정예람

악단광칠(ADG7)은 한국 전통의 흥을 현대적인 팝 사운드로 터뜨리는 '리추얼 컬렉티브(Ritual Collective)'다. '국악 밴드'라는 익숙한 수식어만으로는 이들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전통 국판의 원초적인 흥과 클럽의 세련된 그루브를 하나로 엮어낸 이들은, 듣는 이의 영혼을 깨우는 'K-Ritual Pop'이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했다.

세계 최대 월드뮤직마켓 WOMEX와 globalFEST를 통해 세계 무대에 데뷔한 악단광칠은 뉴욕타임스, NPR Music 등 외신의 주목을 받으며 국가와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넥스트 저니》를 통해 전통 보컬과 국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음악적 여정을 이어간다.

일상에 환상을 불어넣는 악단광칠의 음악적 일탈은 관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전하며,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에너지를 선사한다.



ADG7 is a Ritual Collective that transforms the exuberant spirit of Korean tradition into a vibrant contemporary sound. More than simply a "Korean traditional music band," the group fuses the primal energy of gut rituals with the groove of modern pop to create their own distinctive genre: K-Ritual Pop.

After debuting on the global stage through WOMEX and globalFEST, ADG7 gained international acclaim from media including The New York Times and NPR Music. Their recent project, <Next Journey>, explores new possibilities for traditional vocals and Korean instruments while tracing a musical journey that connects humanity and nature, the present and the future.

ADG7's music fills everyday life with imagination, celebrating the value of living together. Their performance offers comfort and energy, reminding audiences that we are all connected and never truly alone.

컨트리공방

Country Gongbang

8. 16. Sun 18: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피들. 윤종수
보컬·만돌린. 김예빈
기타. 원선재
벤조. 장현호
베이스. 송기하

컨트리공방(Country Gongbang)은 2014년 결성된 대한민국 대표 5인조 블루그래스(Bluegrass) 밴드이다. 벤조, 피들, 기타, 만돌린, 베이스로 이어지는 정통 어쿠스틱 구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서정성을 담은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은 2023년 미국 IBMA(International Bluegrass Music Association:국제 블루그래스 음악 협회)로부터 'International Band Performance Grant'를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24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성지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에 한국인 최초로 입성, 사상 첫 한국어 가창곡으로 전석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등 호평을 받았다.

벤조와 피들의 경쾌한 리듬 위에 한국적 정서가 녹아든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일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의 고장 전주와 미국 민속 음악인 블루그래스가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풀어낼 예정이다. 세계 무대를 휩쓴 탄탄한 앙상블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즐거움의 소리를 만나보길 바란다.



Country Gongbang, formed in 2014, is one of Korea's leading five-piece bluegrass bands. With the classic acoustic lineup of banjo, fiddle, guitar, mandolin, and bass, the group has created a distinctive sound that blends bluegrass with Korean lyrical sensibilities.

In 2023, the band received the International Band Performance Grant from the International Bluegrass Music Association (IBMA), ear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2024, Country Gongbang became the first Korean band to perform at the Grand Ole Opry, the historic home of American country music, where its Korean-language performance received a standing ovation.

This performance combines the vibrant rhythms of bluegrass with the spirit of Korean music. Bringing together Jeonju, the home of traditional Sori, and American folk music, Country Gongbang presents a lively musical encounter that celebrates the joy of music beyond borders.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AI 판소리 한마당: 新(신)소리, 新(신)바람

AI Pansori Creation Project
AI Pansori Festival:
New Sounds, New Winds

8. 13. Thu - 8. 15 Sat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판소리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직접 제작해 보는 전국민 참여형 창작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전통예술이 대중 참여형 콘텐츠로 넓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실험이다. 판소리에 현대의 혁신적인 기술을 더해 전통과 기술을 잇고,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를 긴밀하게 연결한다. '新(신)소리, 新(신)바람'이라는 이름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전혀 새로운 소리의 장을 힘차게 여는 뜻깊은 프로젝트다.

The AI Pansori Creation Project is a nationwide participatory program that invites the public to create Pansori-inspired video cont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transforming a tradition once centered on professional performers into a platform for public creativity, the project expands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s artistic vision toward the future.

Blending the tradition of Pansori with AI technology, the project connects heritage with innovation, and individual creativity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True to its title, "New Sounds, New Winds," it opens a new chapter in the evolving story of Pansori.

GLOBAL SORI

- [한국×폴란드] 〈쇼팽&아리랑〉
 - [인도] 요츠나 스리칸쓰
- [한국×캐나다] 재니스 조 리 & 더 큐티즈 밴드 with 송봉금
 - [말라위] 마달리초 밴드
 - [한국×이집트] 마지카 밴드
- [한국×폴란드] String & Wind

[한국 × 폴란드]
〈쇼팽&아리랑〉

[Korea × Poland]
Chopin & Arirang

8. 15. Sat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프로젝트 너울

대금. 이항윤
거문고. 위은영
해금. 조진용
장구. 강은진
피리. 유승열

루토슬로비아니에 오케스트라

Vocal-Bilgoray suka-Plock fiddle. Maria Pomianowska
Frame drums. Wojciech Lubertowicz
Accordion. Hubert Giziewski
Wspak. Bartłomiej Pałyga



올해는 특별히 전주세계소리축제 25회를 기념하여 한국 전통음악과 월드뮤직 협업 프로젝트 중 역대 대표작인 〈쇼팽&아리랑〉을 재조명 한다.

〈쇼팽&아리랑〉은 201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초연을 시작으로 총 4개년 동안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며 국제 협업 공연의 가치와 의미를 이어왔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과 폴란드의 민속 무곡 마주르카의 만남은 두 나라의 전통음악과 문화가 하나의 무대 위에서 조화를 이루며 국경과 장르를 넘어선 음악적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소리축제가 축적해 온 예술적 성과와 국제 협업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To mark the 25th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one of the festival's most celebrated collaborations betwee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world music, "Chopin & Arirang," is revisited.

Since its premiere in 2014, the project has continued for four years, traveling between Korea and Poland and affirming the value of international artistic exchange.

The encounter of Arirang, inscribed on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and Poland's folk dance Mazurka created a harmonious dialogue on a single stage, transcending borders and genres. This performance recalls the artistic achievements accumulated by the festival and highlights the enduring meaning of global collaboration.



[인도]
요츠나 스리칸쓰

[India]
Jyotsna Srikanth

8. 14. Fri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8세 이상 Over 8 Years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바이올린. JYOTSNA SRIKANTH
타블라. KRISHNARAO RAVISHANKAR
우드. NARASIMHA SWAMY ALALAGATTA SEEBANNA

요츠나(Jyotsna)는 다재다능함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남인도 카르나틱(Carnatic)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다. 아홉 살에 데뷔한 이후 인도 전통음악과 현대적 감각을 넘나드는 과감한 크로스오버를 선보여 왔다.

600여 편의 인도 영화 사운드트랙에 참여하고 10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한 그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웬블리 스타디움 협연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스웨덴 민속음악, 발칸 재즈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아이코닉한 협업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영국 국왕 찰스 3세로부터 대영제국훈장(MBE)을 수훈했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는 인도 전통음악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동서양의 음악적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요츠나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소리의 세계와 강렬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Jyotsna Srikanth is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Carnatic violinist and composer known for her remarkable versatility. Since making her debut at the age of nine, she has built a distinguished career by blending the rich traditions of South Indian Carnatic music with contemporary musical expression.

She has performed on more than 600 Indian film soundtracks and released ten solo albums. Her performance with the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at Wembley Stadium brought international acclaim, and collaborations ranging from Swedish folk music to Balkan jazz have established her as a truly global artist.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s, she was appointed a 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MBE) by King Charles III in 2023.

At this year's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Jyotsna presents a performance that brings together the depth of Indian classical music and a contemporary artistic sensibility. Crossing musical boundaries between East and West, she invites audiences into a vibrant new world of sound.

[한국 × 캐나다]
재니스 조 리 & 더 큐티즈 밴드
with 송봉금

[Korea×Canada]
Janice Jo Lee and the QTS
with Bonggeum Song

8. 13. Thu 19: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재니스 조 리 & 더 큐티즈 밴드(Janice Jo Lee and the QTS)'는 캐나다 토론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문화 현대 포크 밴드다.

이들은 사회 정의와 기쁨, 예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든다. 펑키한 재즈 하모니 위에 더해지는 재니스의 다채로운 악기 연주와 예리한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다. 쿼어 정체성, 반인종주의, 공동체와 지구를 탐구하는 시적인 가사는 관객과 깊은 연대를 자아낸다.

이번 공연에서 재니스는 기타, 트럼펫, 장구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꾼 송봉금과 함께 그녀의 자작곡을 한국의 소리와 함께 협업하여 선보인다.

보컬/기타-장구. Janice Jo Lee
보컬, 기타. Camilo Consuelo Esperanza
베이스. Nim Agalawatte
드럼. Vania Lee
소리. 송봉금



Janice Jo Lee and the QTS is a multicultural contemporary folk band based in Toronto, Canada. Their music is rooted in social justice, joy, and the positive power of art.

Blending funky jazz harmonies with Janice Jo Lee's multi-instrumental performance and compelling storytelling, the band explores themes of queer identity, anti-racism, community, and care for the planet. Their poetic songs create meaningful connections with audiences across cultures.

For this performance, Janice performs guitar, trumpet, janggu, and other instruments, collaborating with Sori Singer Song Bonggeum to present her original songs reimagined through the expressive artistry of Korean Sori.



Canada Council
for the Arts

Conseil des arts
du Canada

[말라위] 마달리초 밴드

[Malawi]
Madalitso Band

8. 15. Sat 19: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무대까지 진출한 말라위 출신의 듀오, 마달리초 밴드가 소리축제를 찾는다. 이들은 어쿠스틱 기타와 풋 드럼, 그리고 직접 만든 거대한 악기 바바톤을 연주하며 그 위에 달콤한 하모니의 목소리를 얹어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고향인 말라위 릴롱웨의 거리에서 10년간 묵묵히 버스킹을 이어오던 이들은 2009년 현지 프로듀서에게 발탁되어 첫 앨범을 발매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성장을 거듭하다 2017년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사우티 자 부사라(Sauti Za Busara)' 페스티벌 출연을 계기로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위매드(WOMAD)와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활발한 해외 투어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기적 같은 음악 여정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까지 선보이고 있다. 말라위 거리의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이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무대를 만나보자.

바바톤-어쿠스틱 기타. Yobu Malinga
풋 드럼. Yosefe Kalekeni



Madalitso Band, the Malawian duo that rose from street performances to international stages, comes to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Performing with acoustic guitar, foot drum, and the babatoni, a large one-string homemade bass instrument, they create a distinctive sound enriched by warm vocal harmonies. After nearly a decade of busking in the streets of Lilongwe, Malawi, they were discovered by a local producer and released their debut album in 2009.

Their international breakthrough came with an appearance at Sauti za Busara in Zanzibar in 2017. Since then, they have performed at major festivals including WOMAD and the Glastonbury Festival, and their remarkable journey has been documented in a feature-length film. Experience the joyful energy and infectious spirit of Malawi through Madalitso Band's vibrant performance.



[한국 × 이집트] 마지카 밴드

[Korea×Egypt]
Mazzika Band

8. 14. Fri 19: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마지카 밴드(Mazzika Band)는 아랍 음악의 풍부한 유산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2020년 한국과 이집트 음악가들이 결성한 다문화 프로젝트 밴드로, 아랍의 소중한 음악 전통인 '타랍(Tarab)'과 아랍 고전 음악에 중동과 한국의 음악적 요소를 녹여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움 쿨숨, 페이루즈 등 전설적인 아랍 예술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시대를 초월한 선율을 이 시대의 관객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마지카 밴드는 단순한 공연 단체를 넘어 음악을 통해 한국과 아랍 세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 마지카만의 정교한 편곡과 연주를 통해 두 전통 음악의 음계나 리듬의 유사점을 탐구하며, 국경을 넘어 두 문화가 한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과 감성의 세계를 선사한다.

타악노래. Wael Zaky
노래. Nourhan
바이올린. 김유리
비올라. FiddleBoy
건반. 오하나
기타·우드. 고익석



Mazzika Band is a multicultural ensemble formed in 2020 by Korean and Egyptian musicians to introduce the rich musical heritage of the Arab world to Korea. Blending the Arab tradition of Tarab and classical Arabic music with Middle Eastern and Korean musical elements, the group presents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inspired by legendary artists such as Umm Kulthum and Fairuz.

More than a performing ensemble, Mazzika Band serves as a cultural bridge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Through refined arrangements and expressive performances, the group explores the shared musical language of both traditions, creating a unique experience where two cultures meet in harmony beyond borders.

[한국 × 폴란드] String & Wind

[Korea × Poland] String & Wind

8. 16. Sun 19:00
놀이마당 Norimadang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String & Wind〉 현의 울림과
관악의 숨결이 만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25회를 기념하여 기획된 국제
협업 프로젝트 《String & Wind》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전통음악이 만나 새로운 예술적 대화를
만들어내는 무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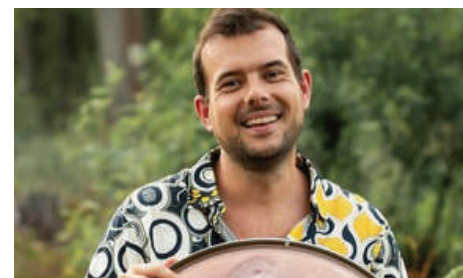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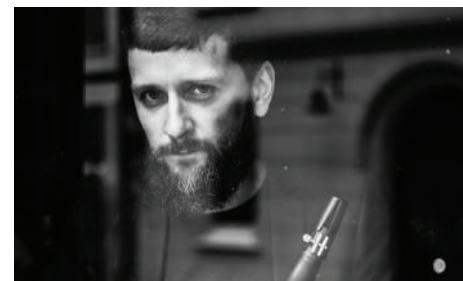
현(String)과 관(Wind), 서로 다른 울림을 지닌
두 악기군이 상징하듯, 이번 공연은 국경과
장르의 경계를 넘어 각자의 음악 언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협업의 과정을 담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이 지닌 깊은 울림과 폴란드 전통음악
고유의 정서가 서로 공명하며, 이질적인 두 전통이
만나 빚어내는 낯설고도 신선한 화성을 선보인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두 나라의 전통이 오늘의 무대
위에서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으로 확장되는
순간, 《String & Wind》는 국경을 초월한 음악적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프로젝트 규호
거문고. 안은정
피리. 광재혁
타악. 김강록

String & Wind Where the resonance of
strings meets the breath of winds.

Created to celebrate the 25th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String & Wind" is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here the traditional
music of Korea and Poland meet to create a new
artistic dialogue. As strings and winds symbolize
different resonances, the performance embodies
a process of collaboration that respects each
musical language while crossing borders and
genres. The deep resonance of Korean tradition
and the unique sentiment of Polish folk music
converge, producing fresh harmonies born from
difference. In this moment where traditions from
the past expand into new artistic possibilities
on today's stage, "String & Wind" shares with
audiences the meaning of musical solidarity and
coexistence beyond boundaries.



ADAM
MICKIEWICZ
INSTITUTE

피오토르 다마시에비치 & Improvisers Expedition

트럼펫. 피오토르 다마시에비치
클라리넷. 마테우스 리비츠키
바이올린. 유스티나 미구와
퍼커션. 우카시 뎀빈스키

SORI NEXT



소리 NEXT

SORI NEXT

8. 12. Wed - 8. 15. Sat

명인홀 Myeonin Hall
놀이마당 Norimadang
전시장 Exhibition Hall
우진문화공간 Woojin Culture Space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Jeonbuk State

[쇼케이스]

소리 프론티어 SORI FRONTIER
소리 초이스 SORI CHOICE

[커넥트]

소리 비지팅 SORI VISITING
소리 포럼 SORI FORUM
소리 피칭 SORI PITCHING
소리 부스 SORI BOOTH
소리 나이트 SORI NIGHT



[2025~2026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선정 축제로, 축제의 기능을 공연 중심에서 예술 유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장(Market)으로 확장하고, 전통예술분야의 지속 가능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소리 NEX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리 NEXT'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공연예술 관계자 간 실질적인 협업과 작품 유통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전통예술 우수작품 쇼케이스를 비롯해 포럼, 피칭, 홍보 부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작자와 기획자, 제작자, 유통 관계자를 연결하는 유통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외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has been selected for the 2025-2026 Genre-Specific Market Hub Support Program organized by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Through Sori NEXT, the festival expands its role beyond performance presentation to become a marketplace for artistic exchange and distribution, strengthening a sustainable platform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Sori NEXT supports traditional music artists in reac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while fostering meaningful collaboration among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Through showcases, forums, pitching sessions, promotional booths, and networking programs, it connects artists, presenters, producers, and industry partners, contributing to a more vibrant and sustainable performing arts ecosystem.

소리 프론티어

Sori Frontier

8. 12. Wed - 8. 13. Thu



차오름

8. 12. Wed 21:30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WOOJIN Culture Space Arts Theatre



오드리

8. 13. Thu 21:30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WOOJIN Culture Space Arts Theatre



황진아

8. 12. Wed 22:10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WOOJIN Culture Space Arts Theatre



오름새

8. 13. Thu 22:10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WOOJIN Culture Space Arts Theatre

소리 초이스

Sori Choice

8. 13. Thu - 8. 15. Sat



김미선×서정숙×유인상 | 숨·시나위
8. 13 Thu 17:00
명인홀 Myeongin Hall



서정민 | SWIMMING
8. 13 Thu 19:20
명인홀 Myeongin Hall



뮤직그룹 세움 | Korean Breath : 만파(萬波)
8. 13 Thu 18:30
명인홀 Myeong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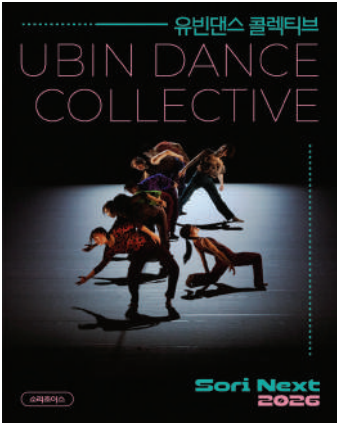


남도콜링 | 남도콜링
8. 13 Thu 20:00
놀이마당 Norimadang

소리 초이스

Sori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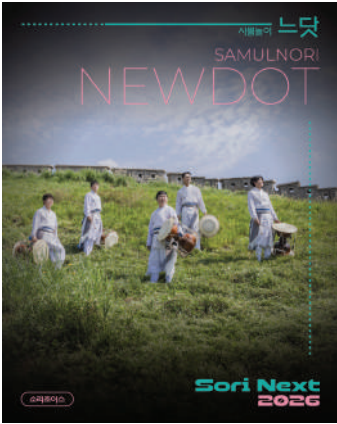
8. 13. Thu - 8. 15. Sat



유빈댄스 콜렉티브 | 무·율·경 舞·律·景 2.0
8. 14 Fri 18:30
명인홀 Myeongin Hall



동양고주파 | 결
8. 14 Fri 20:00
놀이마당 Norimadang



사물놀이 느닷 | 영감
8. 14 Fri 19:20
명인홀 Myeong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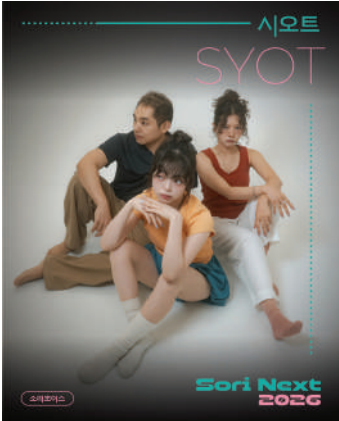


블루찬트 | BIRTH: 지극한 나의 의례
8. 15 Sat 19:00
명인홀 Myeongin Hall

소리 초이스

Sori Choice

8. 13. Thu - 8. 15. Sat



시오투 | This is SEOUL

8. 15 Sat 20:00

놀이마당 Norimadang

소리 커넥트

Sori Connect

8. 12. Wed - 8. 16. Sun



소리 포럼 | SORI FORUM

8. 13. Thu - 8. 14. Fri 14:00-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 Exhibition Hall



소리 피칭 | SORI PITCHING

8. 13. Thu - 8. 14. Fri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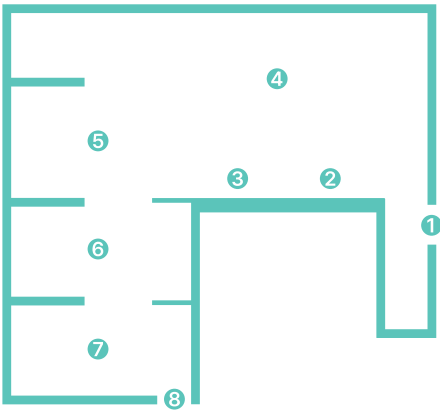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 Exhibition Hall



소리 비지팅 | SORI VISITING

8. 13. Thu - 8. 14. Fri 10:00-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JEONBUK State



소리 부스 | SORI BOOTH

8. 12. Wed - 8. 16. Sun 10:00-18:00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 Exhibition Hall



소리 나이트 | SORI NIGHT

8. 12. Wed - 8. 15. Sat 23:00-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전주시내
WOOJIN Culture Space Arts Theatre,
Jeon-Ju city

- 1 입구
- 2 작가 소개
- 3 오늘의 공연 소개
- 4 네트워킹 공간
- 5 공연 무대
- 6 작가 작품 전시
- 7 미디어 공간
- 8 출구

SORI TOGETHER

- 월드뮤직 워크숍
- 소리 프린지
- 찾아가는 소리축제
- 로컬 아티스트 인사이드 아웃
- [전주세계소리축제×팔복예술공장] 어린이소리축제
- [전주세계소리축제×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
백년의 기록, 천년의 번영
- [전주세계소리축제×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 Beat Connect: Urban to Local

월드뮤직 워크숍
[폴란드]
루토 슬로비아니에 오케스트라

World Music Workshop
[Poland]
LutoSlowinaie Orchestra

8. 14. Fri 11:00
전시장 Exhibition Hall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폴란드 마주르카 리듬과 민속 악기

폴란드 민속 음악의 핵심인 마주르카 리듬과 쇼팽의 작품에 반영된 음악적 영감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100년 전 잊혀진 폴란드 민속 바이올린을 재현한 독특한 악기인 빌고레이 수카를 만나보고, 춤곡에서 주로 연주되는 마주르카 리듬을 바탕으로 한 엄선된 폴란드 민속 선율을 배운다. 워크숍을 통해 곡의 선율과 리듬적 요소는 물론, 폴란드 평야 지역 민속 음악이 지닌 독특한 분위기와 트랜스 같은 특성까지 깊이 있게 익히게 된다.

Mazurka Rhythms and Polish Folk Instruments

Discover the mazurka rhythm at the heart of Polish folk music and the inspiration it gave to Chopin's compositions. Participants will encounter the reconstructed Bilgoraj suka, a rare Polish folk fiddle once lost to history, and learn traditional melodies rooted in the mazurka dance. The workshop also explores the distinctive atmosphere, rhythmic vitality, and trance-like qualities of the folk music of Poland's central plains.

월드뮤직 워크숍
[인도]
요츠나 스리칸쓰

World Music Workshop
[India]
Jyotsna Srikanth

8 .15. Sat 11:00
전시장 Exhibition Hall
전체관람가 All
무료 Free



남 인도의 전통음악 카르나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인 요츠나 스리칸쓰와 함께 남인도 음악의 풍부한 전통을 탐구하는 음악여행으로 이 워크숍에서는 멜로디(라가raga), 리듬(탈라tala), 그리고 카르나틱 음악의 핵심인 즉흥 연주와 인도식 비트박싱인 코나콜을 포함한 카르나틱 음악(Carnatic music)의 기본 요소를 소개한다.

워크숍을 통해 인도 리듬 패턴을 직접 체험하고, 창의성과 즉흥 연주가 남인도 음악 전통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특별 세션에서는 바이올린이 유럽에서 남인도로 전해져 카르나틱 음악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악기 중 하나로 진화해 온 매혹적인 여정을 탐구한다.

South Indian Carnatic Music

Join internationally acclaimed violinist, composer, and educator Jyotsna Srikanth for an introduction to the rich traditions of South Indian Carnatic music. The workshop explores its essential elements, including raga (melody), tala (rhythm), improvisation, and konnakol, the rhythmic art of vocal percussion. Participants will experience Indian rhythmic patterns firsthand while discovering the creative spirit at the heart of Carnatic music, along with the remarkable journey of the violin from Europe to one of South India's most expressive classical instruments.

소리 프린지

Sori Fringe

8. 14. Fri - 8. 16. Sun

2026 「소리 프린지」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개방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의 무대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전주 한옥마을, 덕진공원 등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일상의 공간을 무대로 전환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티스트들이 밴드와 국악, 마임 등 실내외 소형 무대에서 실연 가능한 다채로운 공연예술 장르를 선보인다. 축제 기간인 8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전주시 곳곳을 아름다운 소리와 열정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일상 속 공간에서 지역민과 예술가가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하는 특별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The 2026 Sori Fringe is a festival program that provides performance opportunities for talented artists based primarily in Jeonbuk while expanding the festival beyond the Korea's Center into the city itself.

Transforming everyday public spaces—including Jeonju Hanok Village and Deokjin Park—into vibrant performance venues, the program brings music and the performing arts closer to local communities and visitors alike.

Artist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will present a diverse range of performances, from bands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to mime and other small-scale indoor and outdoor productions. From August 14 (Fri) to August 16 (Sun), these performances will fill the streets and public spaces of Jeonju with creativity, energy, and sound.

찾아가는 소리축제

Arts Caravan with Sori Festival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2026 찾아가는 소리축제'가 올여름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을 누비며 관객들을 만났다. 공연장을 벗어나 지역 곳곳으로 향한 무대는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상 속에서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물했다.

전북의 젊은 소리꾼들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인들이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판소리와 민요, 재즈와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관객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공연을 즐기며 초여름 더위를 잊었고, 예술가들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었다. 전북 곳곳을 따뜻한 소리로 물들인 그 순간들이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Wherever music is needed, the 2026 Arts Caravan with Sori Festival traveled across all 13 cities and counties of Jeonbuk State this summer, bringing performances directly to local communities. Leaving the concert hall behind, the program connected people through music and offered audiences memorable artistic experiences in their everyday lives.

Featuring Jeonbuk's emerging sori singers alongside artists from a wide range of genres, the program presented performances spanning Pansori, folk songs, jazz, and popular music. Audiences enjoyed vibrant live performances up close, forgetting the early summer heat, while performers created unforgettable moments through shared interaction. May these warm musical encounters, which resonated throughout Jeonbuk, continue at the 2026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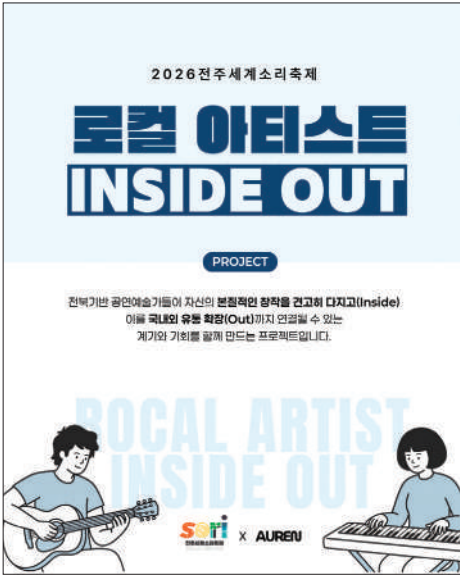
로컬 아티스트
인사이드 아웃

Local Artist
INSIDE OUT

올해 신설된 '로컬 아티스트 인사이드 아웃'은 지역 예술가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인 창작과 유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전문가 강연, 온라인 강연과 아트 마켓 참관 등의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역량을 다져왔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를 뚫어나갈 로컬 아티스트의 멋진 도약과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This year's newly launched "Local Artist INSIDE OUT" program was created to broaden connections with regional artists and to strengthen their creative and distribution capacities. Beginning with an orientation in June, participants have built their expertise through offline lectures, online sessions, and visits to art markets. We sincerely support the bold leap and future achievements of local artists as they move beyond regional boundaries and onto the global stage.

[전주세계소리축제×전주문화재단]
어린이 소리축제

Kids & Family

8. 12. Wed - 16. Sun
팔복예술공장 Palbok Art Factory
유·무료 Free & Paid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전주문화재단이 만나 팔복예술공장에서 특별한 '어린이 소리축제'를 선보인다.

25회를 맞이한 축제의 깊이를 담아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소리의 매력을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활기찬 놀이와 참여형 체험을 통해 소리의 울림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무한한 예술적 상상력을 펼쳐며 소리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joins hands with the Jeonju Cultural Foundation to present a special "Children's Sori Festival" at Palbok Art Factory. Celebrating the 25th anniversary, the program invites children to discover the charm of sound through diverse activities designed at their level. Beyond simply watching, they will sense the resonance of music through lively play and interactive experiences, opening a space where imagination flourishes and young audiences naturally connect with the world of sound.

어린이 소리축제 | Kids & Family

소리,치다
Sori Percussion

8. 12. Wed - 8. 16. Sun | 10,000원

페루 전통 타악기 카혼을 직접 연주하며 리듬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맨손으로 악기를 두드리며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다.

An arts education program where participants experience the joy of rhythm by playing the cajón, a traditional Peruvian percussion instrument. Children discover the excitement of making music through hands-on drumming.



월드뮤직워크숍 - 컨트리공방
World Music Workshop - Country Gongbang

8. 15. Sat | 무료 Free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공방'이 흥겨운 컨트리 음악을 들려주는 세계음악 교실이다. 밴조, 피들 등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 연주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월드뮤직을 소개한다.

A world music classroom featuring lively country sounds by the bluegrass band "Country Gongbang," introducing the lively sounds of bluegrass through acoustic instruments such as the banjo and fiddle while exploring the natural charm of world music.

월드뮤직워크숍 - 마지카밴드
World Music Workshop - Mazzika Band

8. 14. Fri | 무료 Free

다문화 음악 프로젝트 '마지카밴드'와 함께하는 세계음악 교실이다. 아랍 클래식 음악 '타랍(Tarab)'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린이들에게 월드뮤직의 색다른 매력과 풍부한 유산을 전한다.

A world music classroom with the multicultural music project "Mazzika Band." Reinterpreting the Arabic classical tradition of Tarab for contemporary audiences, the program introduces children to the rich heritage and unique appeal of world music.



둥둥통통 리듬 탐험대
Flipper Flop

8. 13. Thu / 8. 15. Sat | 10,000원

음악과 미술을 융합한 유아 통합 예술 프로그램이다. 신체 움직임으로 리듬을 탐색하고 인터랙티브 사운드 매체로 합주하며, 오감으로 소리를 감각하고 표현하는 놀이를 즐긴다.

An integrated arts program combining music and visual arts. Children explore rhythm through movement, perform together using interactive sound media, and express music through all five senses.

이상한 나라의 작곡가
The Composer in Wonderland

8. 12. Wed / 8. 16. Sun | 10,000원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바탕으로 나만의 음악을 그리는 예술체험이다. 아이들이 직접 작곡가가 되어 조각난 악보를 상상력으로 채우고, 다 함께 커다란 대악보를 완성한다.

Inspired by Schumann's Scenes from Childhood, this creative workshop invites children to become composers by completing fragmented musical scores with their imagination and creating a collaborative giant musical manuscript.



유아예술놀이터
Dreaming Art Playground

8. 15. Sat - 8. 16. Sun | 무료 Free

7세 이하 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무료 자율형 예술놀이다. 다양한 창작 재료와 전용 시설이 제공되며,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

A free drop-in creative play program for children aged seven and under and their caregivers. A variety of art materials and play facilities encourage creativity while fostering meaningful family interaction.

사라진 소리선을 찾아서
Finding the Lost Sound Lines

8. 13. Thu / 8. 14. Fri | 10,000원

선과 영화 효과음을 융합해 무성 애니메이션의 소리를 직접 채워보는 프로그램이다. 실과 다양한 재료로 소리 공간을 만들고, 화면에 맞춰 효과음을 완성하며 협업을 배운다.

A creative workshop combining line art with film sound effects. Children build imaginative soundscapes using string and various materials while creating sound effects for silent animation and learning the value of collaboration.



개똥이의 모험
Gaeddongi's Adventure

8. 14. Fri - 8. 15. Sat | 20,000원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감각 체험형 공연이다. 빛, 소리, 움직임 등 다감각적 요소를 통해 아기의 오감을 자극하고, 보호자와 깊이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A sensory theatre experience designed for infants and toddlers under 36 months and their caregivers. Through light, sound, movement, and other multi-sensory elements, the program stimulates young children's senses while creating opportunities for meaningful parent-child interaction.

[전주세계소리축제×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

백년의 기록, 천년의 번영

A Century of Memories,
A Millennium of Prosperity

8. 14. Fri - 8. 16. Sun 14:00 - 16:00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거리 일원

전주문화재단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만나 남부시장 야시장 거리 일대에서 상인들의 안녕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기원하는 신명 나는 마당굿을 펼친다.

옛 봇짐장수가 야시장을 유람하며 상인들의 삶과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각 점포를 찾아가 대박을 비는 맞춤형 축원굿을 진행한다.

야시장 거리에서는 상생과 발전을 비는 이동형 비나리 퍼포먼스가 전개된다. 특히 상인회 농악단이 굿판에 직접 참여하여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무대를 완성한다.

남부시장 야시장에 올라 퍼질 이 뜨거운 신명판은 소중한 백년의 기억을 모아 새로운 천년의 번영을 여는 벅찬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획.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운영.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주문화재단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
유한회사 플라츠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the Jeonju Cultural Foundation's Specialized Market Development Project (Centennial Market) present a lively Madanggut at the Nambu Market Night Market, offering blessings for the well-being and lasting prosperity of local merchants.

A traditional peddler carrying a botjim (pack bundle) wanders through the market, sharing the stories of its merchants while visiting individual shops to perform personalized Chukwongut blessing rituals for prosperity.

A traveling Binari performance brings wishes for harmony and shared success, while the merchants' own Nongak ensemble joins the gut, creating a festive celebration shared by merchants,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alike.

Resounding through the Nambu Market Night Market, this spirited performance gathers the memories of the past hundred years while opening the way toward a new millennium of prosperity.

[전주세계소리축제×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

Beat Connect:
Urban to Local

Beat Connect: Urban to Local

8. 14. Fri - 8. 15. Sat 19:00 - 23:00
전주 남부시장 모이장

전주세계소리축제와 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가 만나 '비트'로 지역과 도시를 잇는 특별한 DJ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남부시장 복합문화공간 '모이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예비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한 창작 프로젝트다. 하우스, 테크노, 힙합, K-POP 리믹스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익숙함과 새로움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선사한다.

재학생 DJ와 지도교수진이 함께 무대에 올라 대중성과 실험성이 공존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전통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역과 축제, 대학이 어우러지며 전자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주최. 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
주관. JTV 전주방송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the Department of Electronic Music at Baekje University of the Arts present a special DJ festival that connects local communities and urban culture through the language of beats.

Held at Moijang, the cultural complex within Nambu Market, the program features original projects created by emerging artists. Blending house, techno, hip-hop, and K-pop remixes, it offers distinctive sounds that move between the familiar and the experimental.

Student DJs and faculty members share the stage, creating dynamic performances where popular appeal meets artistic innovation. Set in the unique atmosphere of a traditional market, the festival brings together the local community, the university, and the Sori Festival while explor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electronic music. This program is supported by the Arts Council Korea's Field Experience Support Program for Emerging Artists at Arts Universities.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직위원장 **최철** 21세기병원 대표원장
집행위원장 **김정수** 전주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명예교수
부위원장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부위원장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국장(원주 주재)
김일구 판소리 명창(전문예술법인 온고소리청 대표)
백학기 시인·영화인·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승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CEO
심인택 우석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역임)
왕기석 판소리 명창(국립민속국악원장 역임)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무연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송재영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집행위원
유영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왕수 문화예술공작소 대표/연출가
천재현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이윤경 국악방송 방송위원
한지영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사업본부 차장
오진욱 극예술전문연출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

유응열 국장
행정팀
박정환 팀장
김정은 팀원
노슬비 팀원

콘텐츠운영부
기획팀
장은옥 팀장
이은주 팀원
김연호 팀원
김영진 팀원
김서연 팀원

행사팀
전성호 팀장
임주미 팀원
장보람 팀원
송미애 팀원

대외협력부
임태영 부장
홍보팀
유일한 팀원
최현주 팀원

마케팅팀
이지환 팀원
백시은 팀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김 정 문화산업과장
박재현 예술육성팀장
이명훈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스태프

박기남 총괄기술감독
김용완 무대감독
김종훈 무대감독
김광호 무대감독
장세웅 무대감독
이준희 무대감독
하형래 현장감독

무대크루
조현일 민병준 박영광 조권상
김태유 김종희 김세연 이윤태
유성일 임상준 이재원 유혜빈

운영 및 안전
소별아 장지미 이유경 강지혜
홍석균 이도운 박화랑 장명윤
최유영 정성준 나상현 이정훈
서우중
버스커즈팩토리
스마트케이
미디어커뮤니티 어마어마
그린월드
모범운전자협회
온누리교통봉사대
국민EMS

축제ESG운영
프리데코
모아름드리 김다윤 김민선
나유진 문성주

하드웨어 시스템
전주MBC프로덕션
M60musicamp
코엘컴퍼니
주식회사 풀곳
에이맥스
회컴퍼니
에프윈
레드제플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지원본부

경영관리부
고경환 부장
정범수 **이동수** 차장
최미송 과장
유민정 **최낙준** 대리
나혜연 주임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이안나** 차장
강성웅 **김미라** 과장
강석민 주임
이성용 **조은아** **김소원** (인턴)

무대기술팀
박성일 팀장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대리
이제훈 기계감독
장정규 차장
연혁찬 **안승주** 무대감독
박수영 **이후인** 무대감독

무대운영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차장
정영모 **조종호** 대리
장준오 음향감독
박성진 차장
송두영 차장
김찬웅 **고은빈** **박대한** 조명감독

고객지원부
황이동 부장
김미미 차장
안은홍 대리
양현규 **송성은** **김하영** 주임
하명경 (인턴)

소리천사

기획팀
고연서 **김가은** **김서현** **김윤지**
김지현 **김현서** **류제센** **문성현**
문지현 **사유나** **신민주** **신수연**
양현주 **유동화** **유장현** **이나경**
이지현 **정다연** **정은수** **정주원**
한승민

무대팀
고은빈 **김단아** **김유라** **김정원**
김지은 **나규나** **박예은** **윤지윤**
이채은 **장서영** **조예은** **조원기**

행사팀
김도현 **김유영** **문 윤** **박가현**
선지인 **손주인** **양민승** **이용순**
이정석 **조경준** **최용호** **한 빈**
홍경표 **권나영** **강민이** **송슬아**
박지후 **박효주** **이예주** **나은비**

홍보·마케팅팀
구서연 **김수진** **김주희** **김지우**
박민우 **박정은** **박주환** **서효빈**
안유선 **양보애** **윤예진** **이도형**
이준호 **임한나** **최취서** **한하민**

행정팀
김건희 **서지윤** **유소연** **이로운**
최수성

기록팀
상형준 **김현성**

예수간호대 간호학과
고민송 **공슬기** **김수빈** **김수인**
김태윤 **나지원** **방서영** **손하린**
신소명 **양환희** **유민주** **유서연**
유지현 **이한별** **임지연** **장세은**
장소은 **정민주** **정보경** **조윤하**
지예인 **한은서**

로컬 커피전문점 '길 위의 커피'가
전주의 맛과 흥을 더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17년 째
커피 맛과 품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16톤
국내에서 옥션 커피를 가장
많이 낙찰 받고 있습니다



전주, 커피가 맛있는 도시
길 위의 커피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술이 축적된 기업 **길 위의 커피** www.gilcoffee.com

우리술 품평회
2년연속 대상수상

이강주(梨薑酒)는 조선시대 3대 명주 중 하나로서, 전통소주에 배(梨:배나무 이)와 생강(薑:생강 강)이 들어간다 하여 이강주라 불리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이강고(梨薑膏)라 불렸습니다.

人間文化財 古泉 謹製
이강주



누룩



밑술



증류



침출, 숙성



여과

이강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맵쌀과 누룩으로 발효시킨 약주를 증류하여 알코올도수 35°의 전통소주에 배와 생강, 계피 그리고 울금 추출액을 넣은 후 마지막으로 꿀을 첨가하여 6개월 이상 숙성, 여과하면 이강주가 만들어집니다.

이강주는 계피의 향기에 배와 생강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나며 울금과 꿀이 첨가되어 있어 많이 마신 뒤에도 머리가 맑아 뒤끝이 깨끗한 술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

청량감을 더해 줌

생강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 서서히 취하게 함

울금

심신을 안정시키며 숙취를 보완함

계피

은은한 향이 입안에 감돌며 첫 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줌

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



19° 25° 38°



